

(Siva) (여성학의 버전업)

Siva

'99 여성연구소
workshop

“여성학의 버전업,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여성연구소

tel 361-3572 fax 361-3572

일시 : 1999년 6월 5일 (토)

오전 9:30-오후 4:30

장소 : 연세대학교 논지당

제 1 부 오전 9:30-12:30

사 회: 김미숙 (연대 여성연구소 전문연구원)
인사말: 조혜정 (연대 여성연구소 소장)

발제 1-1. '제도/비제도 여성학 교육의 경계 허물기 - 연세대 여성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연세대 여성학 모니터링 팀

발제 1-2. "'세기말' 학내 여성운동 - 지속과 확장 에너지 찾기"
김현영 외

발제 2-1. "정말 재미있는 학부 여성학 수업 만들기"
이숙경 (서립대 여성학 강사)

발제 2-2. "강의실 안/밖에서 - 여성학 강사들의 경험"
신경아 (서강대 여성학 강사)

자유토론

FRaEWor가 준비한 점심식사와 문화공연 오후 12:30-2:00

제 2 부 오후 2:00-4:30

사 회: 김현미 (이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연구원)

발제 1. "이제 시작이다, 서울대 여성학 협동과정의 사례"
배은경 · 양현아 · 한정숙 (서울대)

발제 2. "서강대에서 여성학 개설 준비과정"
조옥파 (서강대 여성학연계전공 주임)

발제 3. "연세대의 여성학협동과정 준비상황"
조혜정 (연대 여성연구소장)

지정토론 1. "여성학의 뒤편을 꿰뚫어"
강예린 (페미니스트 웹진 「달나라 딸세표」)

지정토론 2. 현장에서는 어떤 여성학 전공자를 원한다!
윤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류숙명 (문화일보 기자)

신현옥 (경기도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개발팀장)

종합토론: "여성학의 버전업,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 1-1. 제도/비제도 여성학 교육의 경계어물기

-연세대 여성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연세대 여성학 수업모니터링 팀

1. Intro

현재 연세대 안에서 여성학 교육은 다양한 통로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여성과 문학·남녀평등과 인간화·한국사회와 여성문제·여성학 4개의 교양수업은 항시적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학내 여성자치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여성학 세미나와 일반 학회나 동아리에서 진행되는 새내기 교양 형식의 여성학 세미나는 벌써 3~4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여성학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적어도 지식인인 여성학의 모습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교양으로서의 당위가 연대 학생들을 여성학 교육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만족할만하다. 그나마 성(性)의 역사를 성(城)의 역사로 수업하지 않는 여성학 교양수업과 여성학에 대해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고 공감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매순간마다 읊어줄 수 있는 학생들, 그러나 이제 뒤집어 볼 때가 되었다. 연세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성학 교육에 우리는 만족하는가? 여성학 교육에서 무엇을 얻고자 했으며, 변한 것은 무엇인가?

학내에서 여성학 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들 중의 하나인 연대 내 여성활동가(학내 자치단체활동을 하는 이들)들은 거의 대부분 연대 여성학 교육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들은 더 이상 여성학 수업을 듣지 않는다. 여성학 교양 수업이라는 공간이 여성운동에 지지가 되지 못한다는 점과 수업 자체가 여성운동의 장이 되지 못한다는 점은 한번 이상 여성학 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성학 세미나에도 만족하는 것도 아니다. 세미나와 활동의 분리로 인한 부담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커리큘럼 개발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 또한 이들이 처한 현실인 것이다.

우리의 고민은 이 지점에서 출발하였다. 여성학은 운동성, 즉 항시적으로 여성학의 지점을 드러내며 그것의 조건을 바꾸어내는 여성주의적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는 명제를 전제로 할 때, 지금 연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도/비제도 여성학 교육의 가장 커다란 문제지점은 여성학 교육과 여성주의적 실천의 괴리인 것이다.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성학 교양 수업은 남녀공학에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 다룬 성에 대한 이해나 예의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참여자들의 가부장적 현실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를 넘어선 자기 삶의 변화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비제도적으로 학내 여성운동단체들에 의해 진행되는 여성학 세미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여성학 교육과 여성주의적 실천의 괴리는 제도교육/비제도교육의 경계, 교수/학생의 경계, 공적토론/사적토론의 경계들과 이어진다.

이번 조사는 앞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선 연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적/비제도적 여성학 교육, 여성학 교양수업과 학내 여성자치단체의 여성학 세미나, 학회나 동아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내기 대상의 교양세미나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여성학 교육과 여성주의적 운동의 단절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지점을 밝히고 판단하는 것이 이번 모니터링의 주된 내용이다. 여기에 부족하나마 대안을 덧붙이려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이제 이 기획을 시작할 것이다. 현재 연세대 안에서 이

9월 말

루어지고 있는 여성학 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여성학 교육의 수요자들은 여성학 교육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실제로 그들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여성학 교육이 여성주의적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고 할 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제도화된 여성학 수업과 비제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성학 교육의 경계를 어떻게 허물어야 할 것인가? 수많은 물음표를 헤치고 이 글 말미에 백척지근한 해답이 나올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안개 끝 구부러진 길 정도는 찾지 않을까?

2. 여성학 교양수업(제도적 여성학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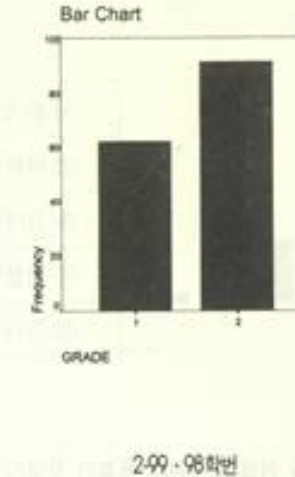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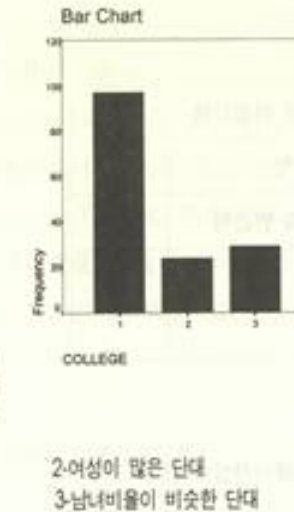
2-1. 실태조사-연세대 여성학 교육의 현황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제하에서 연세대 안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여성학 교육(여성학 교양수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여성학 자체가 여성주의적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고 할 때 제도화된 여성학 교육은 가부장적 사회의 모습을 인지시키고 여성주의적 주제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여성학 교육은 제도교육/비제도교육의 경계, 교수와 학생의 경계, 공적토론/사적토론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단일한 집단이 아닌 여성학 교육의 수요자들의 집단별 특성과 수준에 따라 다른 방식의 여성학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99년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약 1달동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학 교양수업 4개 중 여성과 문학, 여성학, 남녀평등과 인간화 3개의 수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 신청자를 받아 심층면접형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여성학 교육의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여성학 수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나 여성학 수업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 문제점과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집단별(성별, 단대별, 여성화 동기)로 문제의식과 요구들이 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하였다.

2-1-1. 여성학 교양수업 참여자들 중심으로(설문조사의 형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개의 여성학 교양수업 중 3개 여성학 교양수업을 대상으로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여성과 문학-61부, 남녀평등과 인간화-62부, 여성학-36부가 수거되어 총 159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설문대상 중 여성 응답자가 53.3%이고 남성 응답자는 46.7%로 비슷한 수치이나 전체 대학의 남녀 비율이 약 4:1임을 판단하여 볼 때, 여성의 참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 분포를 보았을 때, 97학번 이상이 40.5%이고, 98·99학번이 59.5%으로 여성학 교육 수요자들의 분포가 학년별로 상관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이 많은 단대(공대·상대·법대·사회과학대·신과대)에 소속된 응답자는 64.7%이고, 여성이 많은 단대(생활과학대·음대·간호대)에 소속된 응답자는 16%, 남성과 여성의 수가 어느정도 비슷한 단대(인문대·교과대·이과대)에 소속된 응답자는 19.3%이다.



(문항1) 이 수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순서대로 쓰시오)

- ①성적을 쉽게 얻기 위해() ②학점을 채우기 위해()
 ③교양을 쌓기 위해() ④여성학을 공부해보고 싶어서()
 ⑤기타 _____

1	④ 여성학을 공부해보고 싶어서(46.5%)
2	③ 교양을 쌓기 위해(24.5%)
3	② 학점을 채우려고(42.5%)

여성학 수업의 동기로 남녀와 학년을 불문하고 전체의 46.5%가 여성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의지를 첫 번째로 선택하였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 응답자의 38.0%이 여성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답한 것에 비해 여성이 답한 것이 56.4%로 보다 높게 나왔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남성이 많은 단대에 소속된 응답자의 45.7%가 여성학을 공부해보고 싶어서를 첫 번째로 답하였으나, 여성이 많은 단대에 소속된 응답자의 41.7%가 교양을 쌓기 위해라는 답을 첫 번째로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단대별로 성별 분포에 따라 경험과 성향이 다른 집단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항2) 이 수업 이전에 여성학 교양수업을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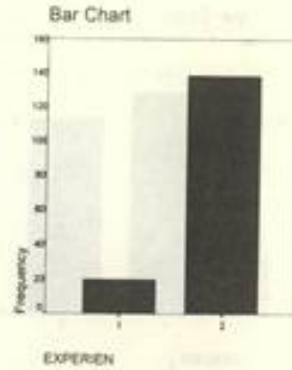
- ① 예 (2-1로) -12.6% ② 아니오 -87.4%

여성학 수업을 1회 이상 참여했던 응답자는 12.6%로, 여성학 수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학 수업을 참여했던 많은 이들이 여성학 수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항2-1) 여성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면, 어떤 수업에 참여하셨습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한국사회와 여성문제	13.6
② 여성과 문학	22.7
③ 남녀평등과 인간화	13.6
④ 여성학	50.0
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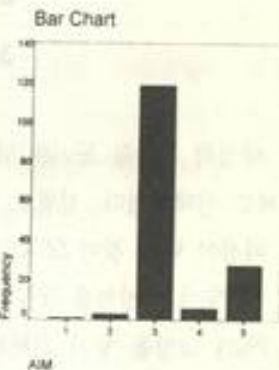
(단위 : %)



(문항3) 여성학 수업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여성이 지켜야 할 예절 및 교양	0.6
② 성(性)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1.9
③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정립	75.8
④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	3.8
⑤ 여성문제에 대한 시각정립을 바탕으로 한 여성운동적 주체 형성	17.8

(단위 : %)



성별·단대별을 불문하고 응답자의 대다수가 여성학 수업의 목표를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정립이라고 답을 했으며, 그 다음으로 여성운동적 주체형성이라고 답을 하였다. 그러나 ⑤여성문제에 대한 시각정립을 바탕으로 한 여성운동적 주체형성이라고 응답한 이들 중 남성(14.3%)에 비해 여성(20.0%)이 약간 많았다. 또한 응답자 중 97학번 이상인 이들은 ②성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④여성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에 각각 27.4%와 29.0%에 답하여서, 일반적으로 여성학을 상식이나 실천의 수준이 아닌 지식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항4) 지금 수강하는 수업의 목표와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여성이 지켜야 할 예절 및 교양	0.0
② 성(性)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3.2
③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정립	63.7
④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	17.8
⑤ 여성문제에 대한 시각정립을 바탕으로 한 여성운동적 주체 형성	15.3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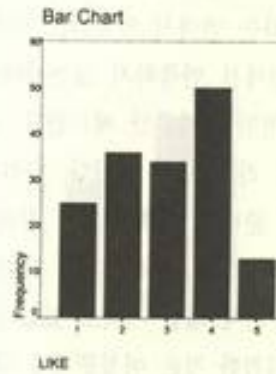
지금 수강하는 여성학 수업의 목표에 대하여 (문항3)과 마찬가지로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정립이라고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가 답을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④여성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에 대한 응답자 수의 변화인데, (문항3)에서 3.8%의 응답자만이 ④에 답을 했으나 본 문항에서는 ④의 응답자가 17.8%로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학을 시각의 정립 혹은 실천의 측면으로 이해했던 수업 참여자들이 기대와 달리 이론적인 수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문항5)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성학 수업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한다. 5 ----- 4 ----- 3 ----- 2 ----- 1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의 1·2로 답한 응답자가 각각15.8%·22.8%로 응답자의 38.6%가 불만을 표시했고, '만족한다'의 4·5로 답한 응답자가 각각 31.6%·8.2%로 응답자의 39.9%가 만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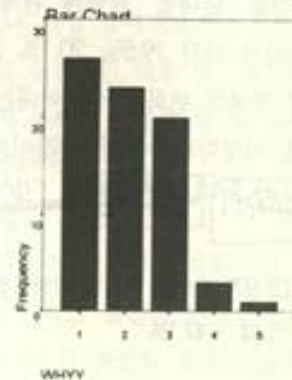


(문항5-1) 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수업의 내용이 내가 기대했던 바와 일치한다.(어떤 점에서 :)	35.6
② 수업을 들으면서 나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 (어떤 점에서 :)	31.5
③ 수업의 진행방식이 마음에 든다. (어떤 방식 :)	27.4
④ 학점을 받기가 수월해서 교양수업을 듣기에 적절하다.	4.1
⑤ 기타	1.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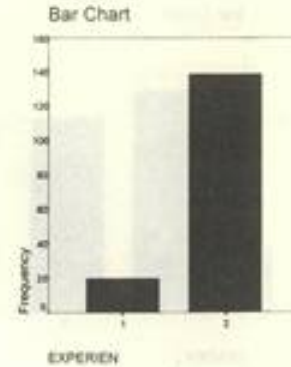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중 73명(45.9%)이 본 문항에 답을 하였다. 수업 내용과 진행방식, 삶의 실천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수업 내용이 어떠한 점에서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정립', '여성학 조류에 대한 공부' 등으로 대답하였다. 어떠한 점에서 삶의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여성학적 관점에서 삶을 고찰할 수 있게 됨' 등으로 답하였다. 수업 참여자들이 여성학 수업에 만족하는 지점은 대체로 여성학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면서 얻는 만족감도 있지만, 자신의 시각정립이나 삶의 변화로 만족감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



(문항2-1) 여성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면, 어떤 수업에 참여하셨습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한국사회와 여성문제	13.6
② 여성과 문학	22.7
③ 남녀평등과 인간화	13.6
④ 여성학	50.0
⑤ 기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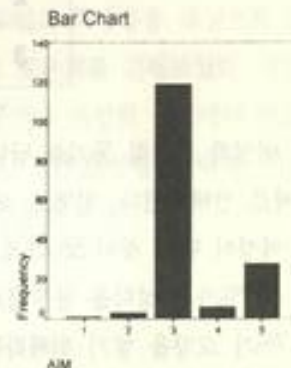


(문항3) 여성학 수업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여성이 지켜야할 예절 및 교양	0.6
② 성(性)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1.9
③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정립	75.8
④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	3.8
⑤ 여성문제에 대한 시각정립을 바탕으로 한 여성운동적 주제 형성	17.8

(단위 : %)

성별·단대별을 불문하고 응답자의 대다수가 여성학 수업의 목표를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정립이라고 답을 했으며, 그 다음으로 여성운동적 주제형성이라고 답을 하였다. 그러나 ⑤여성문제에 대한 시각정립을 바탕으로 한 여성운동적 주제형성이라고 응답한 이들 중 남성(14.3%)에 비해 여성(20.0%)이 약간 많았다. 또한 응답자 중 97학번 이상인 이들은 ②성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④여성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에 각각 27.4%와 29.0%에 답하여서, 일반적으로 여성학을 상식이나 실천의 수준이 아닌 지식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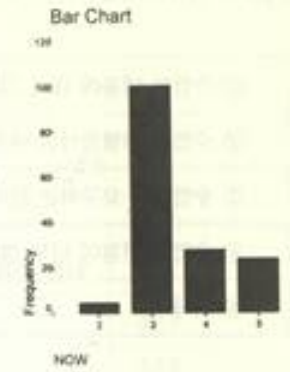


(문항4) 지금 수강하는 수업의 목표와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여성이 지켜야할 예절 및 교양	0.0
② 성(性)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3.2
③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정립	63.7
④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	17.8
⑤ 여성문제에 대한 시각정립을 바탕으로 한 여성운동적 주제 형성	15.3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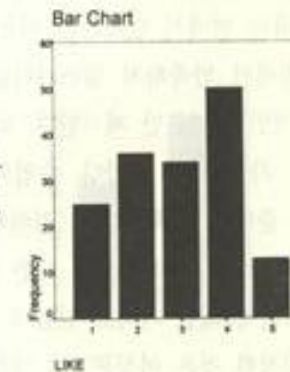
지금 수강하는 여성학 수업의 목표에 대하여 (문항3)과 마찬가지로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정립이라고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가 답을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④여성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에 대한 응답자 수의 변화인데, (문항3)에서 3.8%의 응답자만이 ④에 답을 했으나 본 문항에서는 ④의 응답자가 17.8%로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학을 시각의 정립 혹은 실천의 측면으로 이해했던 수업 참여자들이 기대와 달리 이론적인 수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문항5)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성학 수업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한다. 불만족스럽다.
5 ----- 4 ----- 3 ----- 2 ----- 1

'불만족스럽다'의 1·2로 답한 응답자가 각각15.8%·22.8%로 응답자의 38.6%가 불만을 표시했고, '만족한다'의 4·5로 답한 응답자가 각각 31.6%·8.2%로 응답자의 39.9%가 만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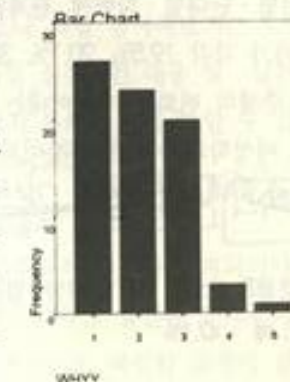


(문항5-1) 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수업의 내용이 내가 기대했던 바와 일치한다.(어떤 점에서 :)	35.6
② 수업을 들으면서 나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 (어떤 점에서 :)	31.5
③ 수업의 진행방식이 마음에 든다. (어떤 방식 :)	27.4
④ 학점을 받기가 수월해서 교양수업을 듣기에 적절하다.	4.1
⑤ 기타	1.4

(단위 : %)

전체 응답자 중 73명(45.9%)이 본 문항에 답을 하였다. 수업 내용과 진행방식, 삶의 실천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수업 내용이 어떠한 점에서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정립', '여성학 조류에 대한 공부' 등으로 대답하였다. 어떠한 점에서 삶의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여성학적 관점에서 삶을 고찰할 수 있게 됨' 등으로 답하였다. 수업 참여자들이 여성학 수업에 만족하는 지점은 대체로 여성학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면서 얻는 만족감도 있지만, 자신의 시각정립이나 삶의 변화로 만족감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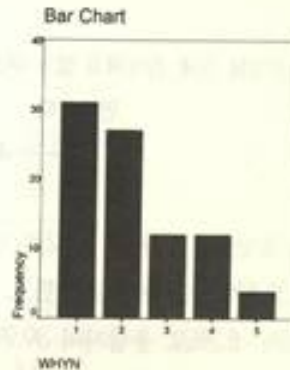


[문항5-2]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

① 수업의 내용이 내가 기대했던 바와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점에서 :	)	36.0
② 수업의 진행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떤 방식 :	)	31.4
③ 수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 (어떤 요구 :	)	14.0
④ 수업의 인원이 너무 많아 수업 진행이 원활치 못하다.		14.0
⑤ 기타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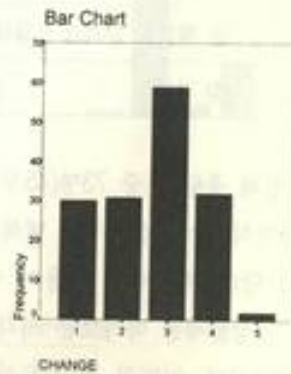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중 86명(54.1%)가 응답했다. 여성학 수업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지적한 것이 수업 내용과 진행방식이라는 면에서 만족하는 이유가 비슷하다. 수업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점에서 만족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여성문제에 대한 피상적이고 중립적인 일반론만 제시한다.' '너무 이론에만 치우쳐 지식전달에만 머무른다' 라는 답이 많았다. 수업의 진행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강사의 강의 준비가 부족하다.', '강의체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다.' 등으로 강사의 강의 형식 자체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한정된 수업 시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수업 참여자들의 불만지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여성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구체적인 현실 분석 및 대안에 대한 제시 등)보다는 이론적이고 지식전달 위주의 수업 내용 및 강사의 수업 형식이었다. 이는 여성학 수업이 강사 개인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으며, 수업 참여자들이 여성학에 대해 실제적인 학문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문항6] 이 수업에 의해 자신에게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많다. 5 ----- 4 ----- 3 ----- 2 ----- 1 전혀 없다.

성별·단대별·학년에 관계없이 대체로 변화가 없다(1~3)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19.5%, 20.1%, 38.3%로 전체 77.9%였다. 이는 여성학 수업이 주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여성학과 여성운동 사이의 괴리를 극명히 보여준다.



[문항7] 앞으로 여성학 교양수업을 또 들을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 47.1% ② 아니오 - 52.9%

성별로 크게 다르지 않으나 여성(50.6%)이 남성(44.8%)보다 다시 교양수업을 수강할 의욕이 보다 많

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항8] 수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단위 : %)

① 소규모 인원으로 토론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21.6
② 단순히 교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학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4.6
③ 이론에 의한 탁상공론이 아닌 실천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32.7
④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37.9
⑤ 기타	3.3

전체 응답자의 37.9%가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여성학 수업에 필요하다고 대답을 하였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의 30.3%가 소규모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여성의 41.3%가 여성학 수업이 실천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우선적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여성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나 실천을 여성학 수업에서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9] 여성에 관련된 행사나 여성운동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위 : %)

① 관심 없다.	20.8
② 관심은 있지만 직접 참여해보지는 못했다.	65.6
③ 가끔씩 참여하는 편이다.	9.7
④ 적극 참여하고 기획도 한 적이 있다.	0.6
⑤ 거부감이 있다.	3.2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의 수업 참여자들은 대부분 관심은 있으나 직접 참여해보지는 못했다고 답하였다. 수업 참여자들 중 많은 이들이 수업 내용 자체에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내용 및 실천과 연계될 수 있는 여성학을 원하나 이러한 의지들이 직접적인 실천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결과분석] 설문조사의 전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학은 여성주의적 실천과 연계되어야 하며, 여성주의적 주체를 생산하는 목적을 가진다. 둘째, 여성학 교육이 여성주의적인 실천과 연계된다고 할 때, 여성학 교육은 제도/비제도의 경계를 넘나들며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학 교육이 삶의 변화와 주체의 실천을 목적으로 할 때, 여성학 수요자들의 차이는 집단적 특성과 성향을 고려하면서 이

루어져야 한다. 설문조사는 크게 성별·단대별·여성활동가의 집단별 분류로 대상을 선정하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설문결과를 볼 때, 표면적으로는 각각의 집단별에 따라 설문결과와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심층 모니터링의 결과에 의하면 수업에서 집단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며 이는 수업에서의 발표나 질문시 성차에 의한 다른 경험들이 충돌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또한 여성학에 대한 동의나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응답자의 65.6%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 속에서 변화나 실천의 모습들이 매우 적었다. 이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설문용지상 무난한 답을 선택했다는 것을 드러내며, 그로 인해 각 집단별 특성에 따라 자신의 삶이나 여성학 교육에 대한 인식·분석 자체가 거의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 여성학에 관심을 갖은 많은 학생들이 여성학의 운동성이나 여성운동 자체에 대한 동의를 피상적으로 갖고 상식이나 교양의 수준에서 여성학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연대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성학 수업은 여성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분석 및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장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피상적인 이론 나열식의 일방적인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여성학 수업의 목표가 여성문제에 대한 시각정립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여성운동적 주제 형성이라고 인식했던 응답자들 대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학 수업의 목표를 전문적인 지식습득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학 수업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여성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보다는 피상적인 이론을 열거하는 수업 내용에 반발을 나타냈고, 수업에 의해 자기 삶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이들이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현재 연대 안의 여성학 교육 수요자들 중 많은 여성들이 여성학을 통해 여성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들을 얻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를 보면 여성학 자체에 관심을 두고 온 많은 학생들이 여성학의 목적을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정립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여성운동적 주제 형성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이론 중심의 수업을 탈피하여 실천과 연관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모아, 특히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여성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나 실천을 여성학 수업에서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학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들이 현실상의 삶의 변화나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는 강의에 만족하고 있지 않으며, 관심의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에 관련된 행사나 여성운동 자체에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그들의 욕구가 삶의 변화나 실천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으로 여성학 수업이 기능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관련 행사나 여성운동이 이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함 또한 의미한다.

2-1-2. 학내 여성 활동가들 중심으로(심층면담형식)

- 여성활동가들이 배워본 여성학 교양수업

무늬만 여성학 수업?

“정말 왕 짜증이다” “무늬만 여성학 수업이다.” “줄라리 도덕적인 고등학교 교실에 와 있는 느낌이다” “애초에 별 기대도 없었다. ‘강사가 우연히도 괜찮은 사람이면 그나마 괜찮겠지’라는 거의 도박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듣게 되었다.” “이제 다시는 여성학 수업 듣고 싶지 않다.”

도대체 누가 감히 ‘여성학’ 수업에 대해 이따위로 ‘짜가지’ 없게 말하는가? 도대체 누가 이렇게 여성학 수업에 대한 한 톨의 이해도 없이 거부감을 내뿜고 있는가? 씁쓸하게도 이런 불경스런 말들을 마구 내뿜고 다니는 자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학내 여성활동가들이다. “고립되어 외롭게 투쟁하는 여성운동가들이라면 웅당 함께 힘을 합쳐 싸워야겠거늘 어인 잡음인가?”라는 생각이 퍼뜩 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성활동가들은 현재 학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성학 수업을 여성운동의 공간으로, 즉 논쟁 속에서 여성주의적 마인드가 생산되고 소통되는 공간으로 절대 인식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수업에 대해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무런 개입의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

제도/비제도, 강단이론/실천(현실)간의 괴리...여성학 수업도 단지 ‘수업’일 뿐이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여성활동가들의 책임을 물을 지도 모른다. 수업이 그토록 맘에 안 든다면, 또 수업이 오히려 여성운동에 대한 오해들을 증폭시키고, 그것을 고립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 동안 여성학 수업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는가, 또는 왜 전투적으로 수업에 개입하여 바꿔보려 하지 않았는가? 사실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여성활동가들이 전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여성학 수업은 여성활동가들의 힘든 싸움을 통해 어렵사리 그 공간을 차지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 그렇게 있어 왔다. 즉, 여성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운동의 가시영역 밖에서 그 누구에 의해서 관리되거나 개입되지 않은 채, 오직 관성의 힘으로만 유지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에서야 그것이 여성운동의 가시영역으로 드러난 것일테구.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여성활동가들이 왜 여성학 수업에 등을 돌렸는지, 무엇이 여성학 수업의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짚어보기로 하자.

여성활동가들에게는 “여성학 수업은 단지 ‘수업’일 뿐이었다.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고 강사는 그에 맞춰 강의를 해나가고, 어느 수업이나 그렇듯이 조발표가 간간히 있는 그런 단조로운 수업, 여성학은 그래서 거의 벗어나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그것이 여성학수업이기에 더욱 지루함을 배가시켰을 지도 모른다.

현 여성학 수업은 제도/비제도, 강단이론/실천간의 괴리에 있어 다른 수업과 다를 바가 없다. 여성학이란 현실과 괴리된 채 그 자체 이론지형의 울타리 속에 안주할 수 없으며, 또한 운동과 분리된 채 강사의 지적 권위 속에만 머무를 수도 없다. 그러나 여성학에 대한 그 기본적인 전제가 현 여성학 교양 수업에는 수용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삶을 해석해내고 다시 쓰는 고통스럽지만 신나는 작업이어야 할 여성학 수업이 그만큼의 자극을 제공하지 못해왔던 것이다.

한 여성활동가를 심층 인터뷰한 결과 그녀가 듣고 있는 수업에서는 단지 강사의 강의와 학생들의 발표만이 존재할 뿐 질문이나 토론, 논쟁은 전혀 없다고 한다. 강사는 강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각자 자기의 역할에 따라 할 일을 알아서 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고 있지 못한 것이다.

여성학 수업의 문제점은 현재 여성학 수업의 강사가 어떠한 식으로 임용되고 있고 그 강사가 어떠한 경력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현재 개설된 여성학 교양수업은 모두 4과목인데 그 중 둘은 사회학과에서 다른 둘은 여학생처에서 개설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임용 기준과 과정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여성학 강사가 어떠한 활동과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거의 드러나 있지 않은 실

정이다.

"(머리를 긁적긁적) 저 제가 수업 준비를 안 해와서... 이만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끝)" 이는 한 여성학 교양수업에서 강사가 했던 말이라고 한다. 수업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여성학 강사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들은 여성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리고 여성학 강사로서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강사의 임용방식이나 강사와 학생간의 관계, 수업 진행방식에 있어 현 여성학 수업은 여타 다른 수업과의 차별성을 거의 드러내고 있지 않으며 이는 여성학이 여성운동에 적합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활동가들은 여성학 수업을 논쟁이나 소통의 공간이 아닌 공급자와 수요자가 철저히 분리된 제도교육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성학 수업의 수요자로서 질 높은 여성학 수업이 공급되기를 기대한다.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또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순간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과감히 돌아서는 것이다. 등돌림, 그것이 바로 여성학 수업에 대한 여성활동가들의 평가이다. 사실 질 높은 여성학 수업에 대한 기대는 수업권에 대한 정당한 요구이며, 그것에 대한 등돌림 역시 정당한 불만의 표시이다. 여성학 수업이 여성활동가들을 수동적인 수용자의 위치에 머무르게 하기에 충분한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예를 들어 여성활동가들의 요구와 관심사가 반영된 수업들이 다양하게 개설된다면, 또는 강사와 여성활동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들간에 여성운동을 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연대의식이 존재한다면, 또는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여성활동가들은 여성학 수업을 단지 수업으로, 자신을 단지 수업의 수용자로만 위치 지우지는 않을 것이다.

여성활동가들은 여성학 수업에 무엇을 기대하는가?

▶ 축적된 자원의 배분의 장으로서의 여성학 수업

여성활동가들은 '싸움'에 필요한 설득력 있는 언어를 구하기 위해 여성학 수업을 듣는다. 한 친구는 "솔직히 나는 여성학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개론적이거나 '지식'을 얻고자 수업에 들어갔다." 라고 말한다. 이는, 우선 무엇보다도 심미적으로 여성주의에 동의하고 그렇기에 여성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뭔가 안 잡히는 것이 있음에 대한 불안의 표시라고 읽혀진다. 그 친구는 여성운동이 서 있는 지형과 지반, 즉 체계적인 배제와 불평등의 질서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 그리기 그리고 자신의 운동을 풀어낼 정교한 언어를 여성학 수업을 통해 전수 받고 싶은 것이다. 아마 이것이 여성활동가들이 기본적으로 여성학 수업에 기대하는 것일 게다. 선배 여성활동가이자 여성학자가 축적해온 자원들을 전수받고자 하는 것.

사실 여성 자치단체들은 내부의 세미나로 그러한 언어들을 공유하고 (재)전유해왔다. 이때 세미나 커리나 주체들은 주로 여성운동의 경험 속에서 축적되고 전수되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짜여지고 선택되는데, 그 자료나 정보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활동가들은 내부적 자원을 풍부히 하기 위한 지속적인 자극과 수혈을 필요로 한다. 여성학 수업, 여성학 강사들과의 네트워크는 이러한 필요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능한 장치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 대부분 여성자치단체들의 세미나가 대체로 신입생 위주로, 비슷한 것이 되풀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오면서 자신의 문제의식의 정교화나 발전에 있어 정체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또한 구체적인 사업이나 활동에 있어서의 되풀이와 정체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여성운동은 지금 제대로 된 질문을 제대로 던지고 있는가?" ... 여성활동가들은 지금 지쳐있다. 그렇다면 그들을 외곽에서 지원해주는 자 원들, 장치들 또는 지지시스템들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여성학 교육의 현재적 모습에 대한 비판의 필요성에 눈을 뜨리게 한다.

심층 인터뷰에 응해준 몇몇 여성활동가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천편일률적인 개론식 여성학 강의는 그러한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학 수업들은 대개 강사의 강의와 학생들의 발표 그리고 그에 부수적으로 덧붙여진 토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의는 주로 페미니즘 이론을 소개한다거나 여성학 개론서를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여성활동가들이나 여성학에 관심이 있어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미 그 정도는 안다"는 것이다.

▶ 논쟁과 소통의 장으로서의 여성학 수업

여성학 수업을 제외하고 여성학과 여성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공간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관심이 있어서 또는 학점을 따기 위해 또는 시간표가 맞아서 등등 수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어쨌든 그 수업은 여성학, 여성운동을 위해 확보된 공간이고, 그런 만큼 그 공간은 여성학 강사나 여성활동가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운동을 풀어낼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학 수업은 그 확보된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 있는가? 여성활동가들은 수업을 통해 논쟁과 소통의 과정을 연습하기를 기대한다. 그들에게 있어 여성학 강사는 이러한 논쟁과 소통을 이끄는 투사이자 훈련가이다. 그러나 현재 여성학 강사들은 그러한 역할(선배 활동가로서의)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또 그만큼 수업은 생산적인 논쟁의 장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한 한 친구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현재 듣고 있는 수업에서 강사는 학생들의 발표에 대해 특히 남학생들의 '멜소리'에 대해 전혀 터치하거나 반박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이 볼 때 여성학 강사는 그만큼의 의무와 권력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한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궁금하고 답답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업을 듣는 여성활동가에게 '왜 당신은 수업에 개입하려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자신은 논리적으로 반박할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고 말한다. 이는 단지 여성활동가들이 자신감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현재 그들이 빈약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운동을 풀어내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일런지도 모른다. 이는 또한 여성활동가들이 여성학 수업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학 수업은 강사 개인 대 학생들 전부를 위계적인 관계로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학 강사는 여성주의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발언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그 목소리가 논쟁과 설득을 주도하게 만들어야 한다. 언제나 얘기하는 것처럼, 여성운동은 끊임없이 말걸기를 시도해야 하고 효과적인 말걸기 전략을 개발해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여성학 수업은 여성활동가들의 목소리조차 끌어내고 있지 못하다.

9A workshop. 2012. 7. 10
조은영
101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여성학에서 주도적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사람들은 여학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남학생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훈련되고 장려된 적극성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는데, 그들 발언 중 상당부분이 '여자만 그러냐? 남자도 그렇다. 또는 솔직히 남자만 그러냐? 여자도 그렇다. ... 그렇다면 여성운동은 잘 못 된 것 아니냐? 객관적이지 않으니까.'라는 식이라고 한다. 수업에서 남학생들은 가시적으로는 페미니스트라고 인식된 여성학 강사를 향해 궁극적으로는 여성운동에 대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감춘 불만들과 오해들을 토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여성학 수업은 이에 대해 별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학생들은 거의 토론에 참여하지 않거나 여성운동에 대한 미심쩍음 또는 혼란스러움을 드러낸다고 한다. 그녀들이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단지 그녀들이 자신감 없고 용기가 없어서? 분명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녀들이 살아 온 20여년의 역사가 그들의 목소리를 가리고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수십년, 수 백년 동안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온 그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남학생들의 그토록 열띤 공격마져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과연 여성학 수업은 여성들이 그들 자신의 탈각된 경험들을 재전유하고 그것을 해석하도록 만들고 있는가? 즉 여성학은 그녀들을 향해 제대로 '말걸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성학 수업의 참담한 상황에 등을 돌려버렸던 여성활동가들은 지금에 와서야 그에 대한 일정정도의 책임의식과 함께 남녀공학에서 여성운동의 소통 통로로서의 여성학 수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성학 수업 모니터링은 여성학 수업들에 대한 비판의 포문을 여는 출발점이다.

지금의 여성학 수업은 강사의 임용, 수업 진행 방식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여성활동가들은 다양한 층위의 여성학이 개설되기를 바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성활동가들은 자신의 활동에 자극과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수업을 기대한다. 예를 들면 실질적인 운동을 벌이는 데 필요한 훈련들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졸업 후 자신의 문제의식과 경험을 풀어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등. 이와 함께 여성활동가들은 여성주의 인식론에 대한 진지한 논쟁과 탐구, 여성주의의 주요 주제에 대한 집중 탐구와 같은 밀도 있고 전문적인 여성학적 지식이 유통되는 수업을 필요로 한다.

2-2 2실에서 대안적

◆ 여성학 수업의 주제와 수위가 다양해야 한다.

"여성학 수업요? 더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 다른 여성학 수업이 개설된다면 여성학 수업을 또 들어볼 생각이예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잘라 말한다. 솔직히 동의할 수밖에 없다. 몇 해 동안 같은 제목, 같은 수로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연대 내 여성학 교양 수업은 사실상 내용에 있어서 수업별로 차별화되지 않는다. 수강한 수업에서 여성학에 대한 관심이 생겨 다른 영역의 여성학 수업을 듣고자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체계에서는 여성학 또는 여성운동에 대한 접근 통로나 여성학의 다양한 접근 방법, 심화된 내용을 얻기보다는 비슷한 내용의 교양을 얻는 정도에서 그치고

마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여성학 수업에 대한 관심을 잃기까지 한다. 또한 다양한 집단에 속해있는 다양한 학생들은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차이를 고려하는 수업을 찾기가 너무 힘든 일이다. 특히 여성학 교육은 자기 삶의 경험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여성학 교육 자체를 막아버린다. 여성학 수업은 다양한 주제와 수위와 고려하여 다층화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수위에 따라 여성학 수업을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삶이나 실천과 연계되는 여성학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여성학 수업에서 삶의 변화나 실천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실행되어야 한다.

여성학이 단순히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함께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에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여성학 교육의 수요자들 또한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 수업을 수강하고, 현재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여성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접함으로써 나름의 대안들을 찾길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들은 피상적이고 원론적인 강의 앞에서 좌절되고 만다. 자아의 변화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성학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이제 너무나도 절실하다. 현재 일방적인 강의나 일방적인 조발표는 여성학 수업이 억압의 지점을 판단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간이라는 것은 잊게 만든다. 그동안 기획되어 온 여성학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들이 여성학 수업에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실행될 수 있도록 수업의 인원을 공급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공간과 물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여성학 강사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연대 여성학 교양 수업을 모니터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강사에 대한 불만이었다. 현재 여성학 수업은 각 수업별로 정확한 커리큘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의 능력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 수업의 수준이 강사의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성학은 특히 여성주의적 실천과 뗄 수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강사의 마인드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강사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원하는 여성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강사의 불안정한 지위나 연대 여성학 강사 임용의 불확실한 기준 또한 여성학 교육을 힘들게 만든다. 그러하기에 여성학 강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여성학 강사들간에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전문성의 심화 작업은 여성학 강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한가지 방안일 것이다. 또한 체계적인 여성학 교육이나 여성주의적 마인드가 강사의 한용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성학 강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대 안에 교양 여성학 강사실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 여성학 수업의 교수나 강사/학생 간에 소통 경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150~200명 사이의 학생들이 빼곡히 한 교실에 모여 있다. 쟁점이 될 만한 논쟁이 던져지지만 이 많은 학생들 중에 굳이 이야기를 할 만한 필요를 못느낀다. 앞자리에 앉은 아이들 몇몇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들리지도 않는다. 차라리 선생님이 마이크 들고 강의하는 것이 편할텐데...

이것이 현재 여성학 수업이다. 보통 대규모의 인원수로 진행되는 여성학 교양 수업에서 학생과 교수 간, 학생과 학생간의 소통은 불가능하다. 학생들은 여성학 수업에서 교수가 원론적이고 피상적인 이야기

여성학 수업 내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우선 시급한 것이 소규모의 인원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주체와 주변의 변화를 바라는 것이 여성학 수업이라면, 그 수업 내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여성주의적 교수 혹은 강사와 학생간의 소통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학 수업으로 쏟아지는 다양한 요구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여성학 수업을 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소통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학내 여성단체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학 교육이 지식의 이해 수준으로 머무르지 않기 위해 실천적인 공간과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주의적 교수 및 강사들의 개입을 통해 학내 여성단체들 또한 수혜받을 수 있을 것이다.

[illegible]

● 1761. (1800의 1월)
 1800년 1월 1일
 1800년 1월 1일

논쟁을 위하여

- 연세대학교 내 여성자치운동에 대한 몇가지 생각들

1. 들어가며

여성학 수업을 제외하고서, 95년 이래 하나의 통일된 흐름을 보이는 여성자치연대라는 공간이 아닌 곳에서도 여성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처음의 문제의식이었다. 이를 위해 현재 명시적으로 여성운동을 표방하고 있는 단체와, 그 외 여성운동이나 여성학적 담론들이 잠재적으로 지지를 받으며 유통되고 있을 만한 공간을 판단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하여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담론들이 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려고 했었다. 이과대 여학생회와 여성자치단체 8곳, 각 단과대 학생회, 중앙 동아리 중에서 인문학적 주제들을 다루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0여 곳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이 정도가 학내에서 여성운동이나 여성학적 담론들이 유통될만한 대부분의 공간일 것으로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성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여성운동의 상황이 열악했으며, 곧바로 학내의 여성운동에 대한 우울한(?) 밑그림이 나타났다. 만약 우리의 조사 범위에서 벗어난 읍지에서 여성학을 공부하거나 활동을 준비하는 다른 친구들이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들과의 새로운 연대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시적인 여성운동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 활동의 위상과 상징성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97, 98년 정도에는 가시화된 여성운동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여성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동아리나 학회 내에서는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 여성학을 주제로 하여 세미나가 이루어진다. 특별한 주제는 아니고, 여성문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 여성학은 노동, 경제, 역사, 교육, 문화 등에 대한 백과사전식 교양 중에 한 토막을 차지하고 있고 주로 신입생의 교양 세미나로 진행되고 있다. 주제는 주로 연애, 사랑, 가족 등이다. 내용이 깊지 않은 만큼 세미나 교재를 정하는 것에서도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 세미나는 주로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당히 중립적인(?) 결론으로 이끌어진다. 이를테면, 여성은 차별받고 있다는 선까지 적당히 동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렇지만'으로 시작되는 몇 가지 알만한 테제들이 이어진다.

보통 여자 선배들 중 한 두 명이 여성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가끔 문제제기하면 대체로 수긍되나, 중심-부문운동의 논점에서 비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여성학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한 두 명씩 있는데, 선배의 추천이나 교양 수준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과 수업 시간표와 맞추어 여성학 수업을 듣는 것 같다. 여성학 수업에서는 동아리나 학회 내에서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여성학을 배울 수

있기도 하지만, 수업에서 동의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편이다. 선거 때 정도 선분을 중심으로 비교하며 한 번씩 이 주제에 대해 얘기해본다..."

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간에서의 목소리는 대체로 이렇다. 이른바 운동권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억압'이나 '운동'이라는 막연함 속에서 동지의식을 지니며 대학 내에서 무시 못할 한 자리를 차지한 여성운동에 대한 예의 정도를 차리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심-부문 운동의 사고 속에서 여성학적 주제들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거나,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면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 당시즘은 과학적인 분석이고, 여성학은 경험적·주관적·심리적·문화주의적 문화라는 관점이 이들 운동권의 공간에서는 여전히 지배적이다. 여성학에 대한 특별한 평가가 아니라도, 전반적으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의 쇠퇴와 함께 세미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여성학은 아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음과 같은 말들 속에서 대체적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알리바이로서 여성의 억압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되곤 한다."
 "페미니즘을 책을 읽을 때 '우리 여성들은'이라는 말이 너무 많아서 거부감을 가지기도 했다."
 "포르노를 보고 논쟁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남성들을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여성들은 거부감을 보였다."
 "선거 때 팜플렛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수준이다."
 "페미니스트는 과격하다. 경험을 절대화한다. 여성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여성운동에 대한 새로운 사고나 실천적인 힘들, 구체적인 여성운동의 사례나 상황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들을 분석하고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여성과 관련된 논의가 세분화되고 가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학 수업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성별·단대별로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 또한 여성운동이 제대로 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니터링 팀은 다시 여성자치단체들의 활동으로 관심을 돌렸다. 학내 여성운동의 현주소에 대한 개략적인 그림이 멀리 갈 것 없이 그곳을 중심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학내에서 여성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작년 말 아홉 개였으나 현재는 45개의 단체가 어려운 대로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미약한 활동이나 펼치고 있다. 이들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판단하기에 이는 여성운동의 현재 상황과 연계를 갖는다. 그러하기에 여성자치단체의 게토화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여성운동의 현재를 진단하는 밑그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글은 자치단체에서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모니터링 준비팀 성원들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수합하여 주관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채 거칠고 짧게 정리된 몇가지 내용들은 활동가들의 자의식적 비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이미 논의되었거나 최근 제기되기 시작한 내용 전체를 축약하여 서술한 것이다.

2. 여성주의 운동 내부의 현황과 문제점

2-1. 여성운동의 관성화와 고령화

연세대 내 여성운동판에서는 근래 들어 저학번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눈에 띄게 저조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타 대학, 그리고 타 운동권에서도 나타난다. IMF이후 고실업 시대를 지나면서 명실공히 취업을 위한 준비와 경쟁의 공간으로 대학이 자리잡아가는 전체적인 분위기, 학점주의 소비주의적 삶의 패턴은 제도교육 외적 학습과 실천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 수업 외의 다른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바쁜 일상의 연속. 여성운동 판에서의 저학번 감소 현상은 학점주의·소비주의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가 분명 여럿 있을 것이다. IMF의 기표가 있기 전이기는 하지만, 95년 당시의 폭발적인 힘들 속에서 자발적인 운동주체가 곳곳에서 생겨났었을 때도 학점주의와 소비주의는 만연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주된 활동가들의 생산이 당시에 이루어졌으며, 그때의 내용들이 여성주의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때 이후로는 더 이상 자발적인 주체들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별적인 인맥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구성되어 있던 조직들과의 약간의 연대는 있었을지언정, 여성주의적 활동이 자발적인 조직을 꾸릴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 있는 담론을 생산해내지는 못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인가?

2-2. 학내 여성자치단체 활동에 대한 단상들

99년 이래 자치단체들의 활동은 대략 다음과 같다.

- 방중 '여성학 학교' '여성주의 심포지엄'
- 신입생 수련회 기간 '성폭력 방지 캠페인'
- 학기초 '새내기 수첩 간지사업 - 성폭력 대처법, 여성학 도서 소개'
- '오늘의 책 소개지 - 여성학 도서소개'
- 'OT 기간 장기자랑 비판 자보-새터에서 무슨 일이 있어나'
- '만약 남자가 맨스를 한다면-생리대 배포'
- '성교육 수다관'
- '3.6 여성노동자 대회 집회 참가'
- '3.8 여성의 날 행사 - 여성노동권에 대한 선전 및 교양 세미나'
- '여성실업기금 마련을 위한 베품시장'
- '군가산제 폐지 집회'
- '미인대회 반대 집회'
- '메이데이 여/생 - 여성노동권 선전, 집회 참가, 문화제 준비, 교양학교'
- '대동제, 구조물-내 몸에 손대지 마, 여성물쓰림 대회'
- '통신공간 활동 - 민노총 포스터 문제제기, 외국 여성문제 지지 메일 등'
- '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운동 준비'
- '동쪽-연애에 관한 영화제'

(1) 심화와 확장의 실패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선언하던 95년 당시, 성정치와 맞물리며 여성주의는 새로운 진보적 질서를 창조할 상징적 힘을 가진 것처럼 보였었다. 성정치 문화제는, 계급으로 환원되지 않는 기괴하리만큼 억압적인 모순의 형태를 정치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비록 총학생회의 명의를 빌어 시작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학생운동 정파와는 무관한 운동주체(정확히 말해서 여성주의적 주체) 형성을 가능하게 했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분위기 속에서는 학생회의 거부장성에 대한 비판을 비롯해 학생운동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정치의 영역을 넓혀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제기와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역할까지도 담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진본진영의 담론을 지탱하는 제반 조건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듯했던 여성주의는, 현재 여성의 권리찾기에 대한 담론 정도로 축소되고 선취하였다는 느낌을 준다. 여성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몇 가지 태세를 아래에서 전면적인 문제제기의 가능성과 정치성들은 사라지고, 대신 눈에 보이는 명백한 차별과 가끔씩 벌어지는 '초가부장'들 내지는 도덕적 근본주의자들이 벌이는 몇몇 사건(?)에 대한 거부감을 동력으로 수동적인 대처만을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다.

(2) 이론적인 한계

지난 겨울방학 중 여성주의 활동을 해온 고학번 및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대략 십여명의 친구들이 2달 여의 준비기간 끝에 여성운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98년 한 해 동안 활동하면서 부딪혔던 어려움과 딜레마에 빠졌던 몇 가지 이론적·실천적인 주제들에 대해 이틀에 걸쳐 타학교 포함 서른 여명 정도의 활동가들이 모여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가졌다. 심포지엄은 크게 차이의 정치, 한국 여성운동의 쟁점과 대학 내 여성운동의 전략과 전술, 타 운동과의 연대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그 이후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대체적으로 현재의 이론적인 딜레마와 한계에 대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후배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별다른 영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탄탄하지 못한 이론적 자신감은 활동과의 괴리를 가져오면서 이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활동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은 눈에 보이는 분명한 억압과 차별에 대해서만 문제제기하고 대처하는 것으로 여성주의를 몰아 가고 있다. 활동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은 다른 한편으로 이론 학습에 대한 강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부족으로 이론 학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은 또 다른 이론에 대한 강박을 낳는다.

(3) 주제들의 단순화

심하게 단순화시킨다면 현재 학내 여성운동의 내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성폭력'과 '여성실업'이며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몇 가지 실천의 양식이 고착화되어 있다. (정기적인 집회 참가, 여성주의 문화제-자료집, 구조물, 뱃지, 대자보, 영화제). 차별에 대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이 두 가지의 주제가 학내 여성운동에서 주도적으로 되면서, 한편으로 다른 운동의 가능성들에 대한 논의와 내용들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볼 때 그것을 풀어 낼 수 있는 운동형태가 집회와 자보선전

이라는 기존의 방법론을 넘어서기 힘들다는 한계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4) 모두가 동의하는 여성운동

이론적인 부재와 여성운동의 계토화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심스러운 현상들에 직면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표면적으로 여성억압을 인정해버리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여성주의는 그 정치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은 어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여성의 억압에, 여성이 처한 불평등에 동의한다는 목소리는 무수히 남아있으면서도 실상은 그 어떤 실천도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아이러니를 볼 수 있는 것 같다.

비슷한 현상을 여성주의 내부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다. 새로 들어온 새내기들도 페미니즘을 다 꿰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주제들에 대해 새내기들이든, 남성들이든, 바깥에서 호의적인 친구든 이미 정답지를 갖고 있다. 여성들은 억압되었고, 남성들은 나쁘다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대립하고 있는 어떤 지점에서도 여성의 피해는 아주 자명한 것처럼 읽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운동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운동의 영향력들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제한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5) 마녀사냥에 대한 강박

이 모든 것들은 페미니즘이라 불리우는 정치적 발언, 실천, 지식에 언제부턴가 따라 붙기 시작한 '분리주의'라는 꼬리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꼬리표가 여성주의에 대한 근거 없는 표상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 꼬리표의 무게와 성차별의 자명함 속에서 악순환하며, 일상적으로 불평등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학우들과 여성주의자들은 입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육칠십년대 영미 페미니즘 운동의 길이 어떤 식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와 비슷한 길을 우리는 또 이 짧은 시기 동안에 다 거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한다. 더군다나 여성주의에 대해 한 번 제대로 된 실험과 실천들도 해보지 못한 상황이었는가?

(6) 여성주의적 주체의 축소

95년 성정치 문화제 이후 가시화된 여성운동의 흐름은 미약하나마 여전히 상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타학교의 경우 운동권(?)과의 관계에서 여성운동의 기반이 약한 것에 반해, 우리학교의 분위기는 속내용이야 어떻든 대체적으로 여성주의나 '여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오히려 무게로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현재 여성운동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주체들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럼에도 그 범위와 활동에 있어서 여성주의적 주제들은 너무 산적해 있어 결과적으로 힘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 보아야 한다. 일일이 짚어가야 '할 것 같은' 주제들은 숏하게 많은데, 부족한 주체들로 인해 활동들 하나하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중적인 호응 없이 계속 지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문이 필요하다.

(다음은 현재 자치단체들의 여성운동에 고유한 문제점이겠지만, 자치단체들의 위상과 비중이 중요하

다면 그들의 물질적인 조건과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다.)

2-3. 선거

학내 여성운동에서 선거의 영향은 크다. 비단 공간과 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라는 공간을 통한 정치활동, 선거기간 내의 갈등, 승패에 따른 중요성과 후유증, 선거기간 동안의 역량의 집중과 소비, 선거를 의식하는 1년간의 활동 등. 실상 작년 선거 이후 심리적인 패배감과 상처, 무력함들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패배를 통해서 확인되는 여성주의의 현 주소에 대한 성급한 실망과 함께, 또한 작년 서울 지역에서 여성주의를 표방했던 총여선본이 대부분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좀 더 중요한 내용과 문화적 맥락들을 그 속에 담고 있을 것이다. 돌아보고 싶지 않아도 선거제도에 대한 재평가와 논의가 꼭 필요할 것이다.

2-4. 공간

공간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정신적·문화적 유대는 거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작년 총여선을 기반으로 한 여성주의 유대감은 현재 와해되고 있다. 공간의 부족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는 모임 속에서 각 자치단체의 구성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일상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심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7-8개의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구상대 뒤의 가건물에 있는 좁은 '동쪽'방에 우리 학교 내 가시적인 여성운동의 주체들 거의 대부분이 모여 있다. 이과대 여학생회를 제외한 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한 군데도 없다. 일상적인 생활을 이곳에서 함께 하는 속에서 각각의 자치단체들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거나 비슷해지고 있으며, 반대로 이 공간에서 형성된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과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어지고 있다.

좀 더 실질적으로는 작년 총여학생회 내에서 공간과 재정을 받으며 활동했던 '생활도서관'이 학우들이 드나들 수 있고 책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올해 들어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두입술' 역시 재정과 공간상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2-5. 기독교 총여학생회 - 복음주의 운동과 여성운동?

기독교 학교에서 성정치 문화제가 시발되고, 여성주의적 여성운동이 그나마 활발했던 연세에서 기독교 여성운동을 표방하는(?) 총여가 당선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해 보인다. 95년 이후 여성운동은 어떤 면에서 기독교와의 투쟁사로 읽힐 수도 있다고 누군가가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다.

서로에 대해 곡해하거나, 선거 당시의 패배감에 연연한다거나, 여성운동의 다양성을 내용으로 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지는 정도의 단순한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저변의 문법이야 어떻든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여성운동이 여성주의 운동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 여성주의와의 차이를 자신을 논리의 주요부분으로 삼으면서 나섰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여성주의자들에 대한 '분리주의'라

는 표현을 이들이 가장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97년초 총여학생회에 출마한 이후로 계속해서 '기독교여성모임'의 이름으로 '새로운 '여성해방운동'-정확히 말해 '여성생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이들이 현재 총여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의 내용이 여성주의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에 대한 비판과 내부적 비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주의와 기독교여성운동과의 대립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 것 같기 때문이다. 어려운 문제이다.

3. 나오며

글 전체에서 '여성운동의 위기'를 전제하고서 문제제기 하였기에 어둡고 무거운 질문들이 된 것 같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운동권이든 아니든, 공대든 문대든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확인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은 자기 평가인 한에서 아마도 제한되어 있고 또한 과장되어 있을 것이다. 연세의 여성운동이 자치단체들에 의해 이끌어져가고 있다는 식의 내용은 오만하면서도 부담스러운 명제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정리하자면, 언젠가부터 여성주의 운동에서 느끼는 불안함들이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확인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설명할 만한 심화된 논의와 언어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인다. 딜레마 속에서의 자신감 상실, 그로 인해 자기방어적인 심미적 비판과 여성주의 공동체로의 안주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심화된 논의의 자리로서 여성학적 주제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공급이 꼭 필요할 것 같다. 동아리나 학회에서 바라본 평가와는 반대로, 여성주의 내부에서 현재의 여성학 수업을 듣고 있는 많은 친구들은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원적이고 심화된, 여성학의 공급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발제 1-2. 세기말, 학내 여성운동 - 지속과 확장의 에너지를 찾아서

김현영 (전 성균관대 총여학생회장)

이 글이 목적하고 있는 바는, 신세대 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다.

90년대 후반, 여성운동의 신세대가 등장한다.

90년대 후반, 사람들은 학생운동의 전면적 위기가 찾아왔다고 웅성거렸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대중에 대한 감각을 잃고 극렬투쟁의 극약을 사용하는 한총련타으로 돌리기도 하고, 탈냉전과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충격의 부작용이라고도 하고, 익명성안에 개별인이 숨게 되는 대중문화가 대학의 공동체성을 파괴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중에 성장하고 있는 대학내 움직임들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대학내의 여성운동이었다. 대학내 여성운동의 이같은 성장에는 다양한 분석이 나올 수 있겠으나, 거대담론의 당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일상성에 착목하여 실천활동을 해나간 것이 시대적 요구와 맞아 들어간 것이 아니겠나하는 생각이다. 이 시기의 대학내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운동으로서의 독자성을 체화해서 표출하였는데, 이것은 그동안 학생운동에 대한 부채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던 대학내 여성운동가들이 여성운동의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신감들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무엇을 해내고 있었을까?

성정치 '세대'는 없다.

80년대를 관통해온 무겁고 진지한 당위앞에서 감히 여성을 얘기하자는 호통을 건드려온 여대생들은 90년대에 페미니즘의 상품화를 목도하게 된다. 대학에서는 여성을 제목으로 하는 강의에 사람들이 몰리고, 페미니즘은 패션니블한 상식으로 쉽고 가볍게 얘기되었다. 대학내의 여성운동가들(혹은 여성조직내의 활동가들)은 이제 새로운 질문에 접하게 되었다. "너네 페미니스트 맞아?"라는. 정체성을 위협하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여학생 복지와 대학내의 학생정치운동에 복무하는 것을 조직의 의무로 삼고 있던 여성활동가들은 정체성과 관련한 혼란을 겪게 되고 그것은 조직의 해소와 재건으로 이어지는 급격한 변화를 낳게 되었다.¹⁾

90년대 후반, 성에 대한 의식들이 급격한 변화와 혼란을 겪고 있을 무렵, 성정치가 들어온다.²⁾ 성정치는 여성/남성의 이분화된 성만이 아니라 동성간의 성 등에 대한 존재를 확인시키며 선택으로서의 성을 부각시킨다. 성정치는 당시의 학내 여성운동가들에게 적잖은 자극이 되었다. (성정치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 크게 세 축으로 볼 수 있는데 동성애자 인권운동가들, 여성운동가들, 학생운동세력³⁾의 일부였다.)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성정치의 세례를

1) 이러한 혼란은 조직체계의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총여학생회의 역할을 둘러싼 이같은 논쟁이 벌어진 90년 초반, 서울지역에 있는 총여학생회 중 많은 수가 총학산하의 여성부로 해소되거나, 활동상의 미진함으로 다음 세대를 수급하지 못하게 되어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2) 95년 연대의 성정치문화제가 그 정점이다.

한껏 흡수하여 조직형태를 갖추고 초기의 운동적 에너지를 모으게 된다. 또 ⁴⁾한 축이었던 대학내 여성운동가들은 성정치에 호기심을 가지고 기웃거리며 성정치가 얘기하는 '선택'으로서의 성이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했던 성적 자기결정권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각 대학별로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일련의 성폭력사건들에 허덕이던 대학내 여성운동주체들은 성정치와 성폭력을 자기결정권의 맥락으로 읽어내는 데에 성공한다. ⁵⁾다시 말해 대학 여성운동주체들은 성정치가 말하는 성을 둘러싼 권력관계가 여성운동의 논제와 동일한 것이라고 전유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운동에너지로 만든 것이다.⁴⁾ 성정치가 만들어낸 담론에 거품이 있었다면 그것은 학생운동권세력에서 보여진다. 이들은 성정치의 의제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활동과 실천으로 표출되게 하는 데에는 그다지 관심을 쏟지 않았다. 이들의 호기심은 동성애자인권운동과 여성운동의 활동에 대해 이제 그 전과 같이 함부로 비판할 수 없게 하는 이론적 당위를 만들어낸 수준에서 멈추게 된다. 이처럼 성정치가 대학내 여성운동주체들이 95년 이후에 받았던 영향 중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한 세대를 에두르는 정체성을 형성시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⁶⁾세대적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 것은 들꽃모임과 각 연대체의 생성과정에서 보여진다.

성정치의 영향만큼이나 또한 이 당시의 대학내 여성운동주체들의 문제의식에 영향을 미쳤던 인적 매개자⁵⁾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변리나가 있다. 변리나는 매매춘 지역의 현장활동가로서 95년 참누리라는 여성교육모임을 만들어 서울여대, 고려대, 이화여대, 동국대, 성균관대 등의 여성운동가들을 직접 교육시키며, 창녀-정숙한 여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깰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대학내 여성운동주체들은 성에 대한 폭발적인 담론을 여성의 몸에 관한 관심으로 집중시키게 되고, 이것은 일상성에 착목한 활동을 펴나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 어떤 당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의 몸을 가진 자신을 위해서'라는 주체의식이 형성된 것이다. 몸에 관한

들꽃모임과 여성연대체의 결성

96년 5월 이대 대동제에서 고대생 난동 사건을 계기로 들꽃모임이 결성되고, 성대 ROTC 성폭력사건과 국민대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여성연대회의가 결성된다.

95년, 이대-고대 난동사건을 계기로 들꽃모임이 결성된다. 각 대학에서 '왕따'운동을 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시달리던 대학내 여성운동가들은 들꽃모임을 통해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게 된다. 이후 들꽃모임은 각 학교에서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면서, 여성주의적 문화실험장이 되었다. (들꽃이 만들어낸 여성주의적 문화)는 정당화된 분노에 대해 심리적-정서적인 지지기반이 되어주었다(이 정서적 지지기반은 커뮤니티 형성의 필수조건이다). 들꽃모임에 학내 여성운동가들이 모여들면서 여학생조직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다른 대표체(전여대협 등)가 전혀 활동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내 여성운동과 관련된 이슈와 사건들이 들꽃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표자치체가 아닌 들꽃모임은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접수되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성폭력사건이었다는 문제의식으로 여성연대회의의 결성의 필요성에 불을 지르게 되었다(대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신세대 페미니스트의 커뮤니티의 결정은 들꽃캠프였다. 들꽃캠프는 기존의 운동에서 진

3) 1998, 여성연대 한판 자료집 중, 대학내 여성운동사(유정미, 권현수)

4) 이렇게 보면, 성정치세대라는 이름은 초기 동성애자 인권운동가들에게 주는 편이 옳다.

5) 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대 여성학과 김이송현의 98. 2학기 기말페이퍼의 도움을 받았다.

행했던 캠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캠프는 발제와 토론회, 강연 등이 단 하나도 없이 여성주의적 문화와 놀이만으로 이루어졌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여성연대의식을 생성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모임들의 생성과 소멸: 확장과 소멸의 판단기준?

이후, 많은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들꽃모임, 마녀, 니아까, 1312, 탄짓 등의 게릴라 걸들이 대거 등장하고, 98년 여성노동권확보를 위한 대학연대(이하 여노대련)가 결성된다. 여성주의적 연대체의 특징은 주제별 연대체라는 점(성폭력=여성연대회의, 여성노동권=여노대련 등)과 조직의 구조가 평등하다는 것이다. 대표가 없고, 공동으로 논의해서 공동책임을 지는 이같은 체계는 성과를 거둔 측면이 적지 않으나 회원들의 자발성에 따라 활동여부가 달려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주제와 사안별로 모이는 연대체의 활동방식은 99년 미스코리아 반대투쟁을 위해 결성된 KILL⁶⁾에도 연결된다. 그러나, 활발한 활동과 가시적인 성과⁷⁾에도 불구하고 대학내 여성운동가들은 에너지의 고갈에 대한 걱정을 공유하게 된다. 이같은 걱정은 98년 후반에 이루어진 학생회선거에서 여성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총여가 낙선되면서 긴장을 더해가게 된다.

위기에 대한 인식: 지속과 확장의 에너지를 찾아서

잠깐, 움직임이 강렬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판단일 것이다. 움직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그것은 쉽게 고갈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위기의식을 위기라고 명명하는 것은 전망에 대해 짐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대학을 졸업한 여성주의자들에게 여성단체와 대학원진학, 일반취업의 세 가지 길이 보여졌다. 이 중에서 일반취업은 가장 피하고 싶은(사실은 별로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 길) 길이고, 대학원진학은 어느 정도의 자원을 가진 상태에서야 가능한 선택이었다. 여성단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6개월의 인턴계약을 맺고 들어가게 되는데 경험의 확장과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하나, 계약직이라는 조건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었다.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욕망, 새로운 여성주의적 운동방식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갑자기 단절되었다. 권위와 위계를 배격하는 조직활동은 일반사회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체적으로 하는 것에 재미가 들린 여성주의자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뒤편을 욕망한다. 할 수 있는 일들과 재미있어 하는 일이 전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페미니스트들은 차라리 뒤편이 되어 다른 식의 삶을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뒤편은 전혀 낭만적인 선택이 될 수 없었다.⁸⁾

6) KILL의 경우, 한 사람의 발의로 사람들을 모아 집회를 한 케이스이다. 각 캠퍼스별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다른 상태에서 주제별 프로젝트 모임은 다양성과 기동성을 함께 잡아간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7) 이 시기가 가져다준 가시적인 성과의 대표적인 예는 성폭력 연대회의의 학칙제정운동일 것이다. 학칙제정운동은 꾸준한 활동을 통해 위험수위에 다다른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내고, 몇몇 대학들(시립대, 외대 등)에서는 실제로 학칙이 제정되는 성과를 낳았다. 또한 게릴라걸들의 활동은 소수가 모여서도 운동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안겨준다. 게릴라모임들은 현재도 계속 생성되고 있다.

8) free-war가, 백조마인드를 내세우며 최소한의 생계와 자율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를 구상

한편, 대학내의 여성주의자들은 대학 안에서 여성운동을 대중적으로 인지시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고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열악함을 안고 있다. 여성주의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신입생들이 하는 "여성학은 공부하고 싶으나, 여성운동은 부담스럽다"는 말에 당황하게 된다.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삶의 가치관을 전복시켜야 가능한 일이다. 이들은 전면적 변화는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일상의 분노에 대처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들을 만날 언어는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 이제는 벌써 진부해져 버린 페미니즘에 새로운 언어를 입히고 새로운 경험을 이끌어낼 개념적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가 제기된다. 구호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체화하게 하지 못한다.¹⁰⁾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전망에 대한 부재, 다양한 흐름을 생성할만한 풀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문제이다. 문제는 언제나 복합적인 상호연관을 가지고 있다. 고리를 푸는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이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모인 이들¹¹⁾은 여성주의로 사람을 만나는 방식을 고민하였다. 처음부터 지나친 책임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여성주의를 내면화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성들을 가르치려 들지 않으면서 여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의 모임에서 이제 겨우 시작한 우리들의 고민은,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의 다양화와 책임감을 가지는 방식의 문제였다.

이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은 지점이었다.

첫째, 이합집산이 자유롭고, 구체적인 주제활동이 있는 프로젝트 모임의 활성화이다.

둘째, 여성학강좌와 대학내 여성운동가의 만남과 소통이다.

셋째, 활동가들의 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성주의적 풀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그것을 확인가능한 데이터로 만들기 위한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

그리고 여성주의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어떠한 전망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제시될 수 있는가이다.

한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였다.

9) 성적 차이에 기반한 여성노동권 확보, 성별분업 철폐, 가족임금 철폐라는 구호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알았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구호들이 보다 확실해 진 것은 그것을 체화하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맞는 것이라면, 여성노동권에 관련된 활동들이 성숙될수록 구호들도 현실적이 되어 갈 것이라는 기대는 틀린 판단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일상적인 경험을 운동으로 이끌어내는 것의 어려움은 언어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10) 예를 들어 미스코리아 반대 투쟁의 경우, 세 가지 흐름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이프에서 주최한 안티미스코리아페스티벌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대학내 여성주의자들이 모여 대회날 집회와 퍼포먼스를 하는 KILL, 나머지는 여성통신모임에서 발기된 미스코리아대회 스폰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운동은 운동에 참여할 지평을 넓혀주게 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몸이 남성들에 의해 전유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나의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해준다.

11) 연대 생활도서관 주제 토크, 두입술의 진천, 고대여위의 송근이, 동대총여의 서신경화, 서강대의 김보연.

발제 2-1. 정말 재미있는 학부 여성학 수업만들기

이숙경 (여성운동가 · 출판기획인 · 저우기교가 · 서울시립대학교 여성학강사)

93년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처음 강의를 시작한 곳은 부산공업대학교였다. 분반된 수업을 갑자기 맡게된 나는 제대로 수업준비도 하지 못하고 200명 수강생 앞에서 횡설수설 여성학을 강의했다. 남학생이 반 이상이었고, 억센 부산사투리가 기본적인 의사소통마저도 어렵게 했다.

두 번째로 강의를 한 곳은 원광대학교. 역시 남녀공학이었다. 그다음 경인여자전문대학을 끝으로 나는 강의를 한동안 하지 않았다. 강의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때 강의를 마치고 나왔을 때의 부끄러움, 허탈감, 자괴감을 잊지 못하겠다.

한동안 강의를 하지 않다가 지난 학기부터 서울 시립대학교에서 「여성학」과 「성과 사랑」을 맡았다. 그러다가 지난 학기에 시립대에서 갑자기 분반된 수업을 맡았는데 수업하는게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수업을 한다. 재미있던 여성학 수업을 재밌게 하게된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여기에 그 이유를 적어보기로 한다.

첫째로 시립대학의 여성학 강의는 수강생이 5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강의실에 모인 학생들의 얼굴이 한눈에 들어오고 두어번 수업을 하고 나면 학생의 이름과 얼굴이 연결된다. 초반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학생들이 대충 수업에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진다. 여성학 수업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문제의식을 실험,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수가 100명을 넘으면 학생들이끼리 토론하기가 어렵고 조별발표를 하기에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강사의 강의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가끔 특강을 하거나 영상매체를 함께 보기도 하지만 역시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전에도 조별토론이나 발표수업을 해보았지만 학생수가 너무 많으면 토론시간은 '노는 시간'으로 발표수업은 '자는 시간'으로 전락하게 된다.

두 번째로 내가 여성학을 재밌게 강의할 수 있게 된 이유는 강사들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립대학교엔 여성학강좌가 여러 개 개설되어 있다. 「여성학」과 「성과 사랑」을 합해서 13개, 6명이 강의하고 있다. 지난 학기엔 이 중 4명의 강사가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강의를 배정받았다.

강사들끼리 모이게 되면서 우리는 강의내용, 새로운 매체활용 뿐 아니라 강의의 조건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늘 학기초마다 분반을 하느라 어수선 했는데 아예 수강생을 50명 이내로 제한해서 강좌수를 늘려버렸다. 이전까지는 6개정도가 개설되고 학생수가 넘치면 나중에 분반하는 식이었다. 특강도 서로 시기를 맞추어 함께 강사를 섭외하고 강의내용도 함께 평가했다.

세 번째로 총여학생회와의 교류를 만들어낸 것이 강의에도 힘이 되었다. 겨울방학동안 "Happy Together"라는 (여학생운동가 내공쌓기 프로그램)을 했다. 첫 번째 참여자가 시립대

학교 총여학생회 운영진들이었다. 방학동안 총 6회의 프로그램을 했는데 서로간의 관계맺기, 자기 성찰, 그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학내에서 여성운동하기가 주요내용이었다. 나와 또다른 시립대 강사 박홍주, 그리고 이대 여위출신의 여성학과 석사과정 조혜련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나는 시립대학교에서 여학생운동이 처한 조건과 상황을 읽을 수 있었고, 학교문화를 좀더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었다. 이들의 생활적인 고민들을 접하면서 교실에서의 학생들의 문제의식도 좀더 생생하게 짐작할 수 있었다.

총여와의 네트워킹은 이후 여성학 강의와 총여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총여 활동에 간접,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었다. 총여가 주관하는 여성문화제 행사에 수강생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총여학생회 집행부원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학생들과 함께 학내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우리가 총여에 도움을 받은 적도 많은데 총여실에 있는 비디오방에서 비디오를 보거나 총여실에서 토론을 한 적도 있다.

총여와 네트워킹 하면서 여성학 강의는 학교문화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교실을 넘어 학교의 성문화, 여성운동과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강사가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관련 문제나 사안을 교실을 통해 담론화하고, 기말페이퍼나 조별연구의 주제로 삼게 해서 여성학 수업이 학내 여성운동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물을 실천적인 실험으로 훨씬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개인적으로 나의 경험의 변화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는 운동단체, 출판사, 그리고 카페를 운영했다. 결혼을 했으며 아이도 낳았다. 대학원에서 공부한 이론과 문제의식들이 삶의 경험을 통해 '삶의 언어'로 바뀌면서 강의에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졌으며, 여성학적인 문제의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도 달라졌다.

특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잠시 책을 멀리 했던 것이 강의엔 큰 도움이 되었다. 개념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일상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생활적인 언어로 말할 수 있었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좀 무식해진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 실험을 했던 경험, 그리고 카페에서 20대의 여성운동가들과 만나 이벤트도 하고 모임도 만들며 지내는 동안 '이런 것을 설명해야겠다'가 아니라 '보여주기, 느끼게 하기, 바꾸게 하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본 20대 영페미니스트들은 이미 몸으로 실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얻었다(혹자는 내가 양기를 흡수했다고도 한다). 막연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닌데..."라는 느낌, 언어에 갇혀있는 듯한 갑갑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변화하자 실라버스도 파격적으로 바뀌었다. 연구방법도 열어놓고, 가능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많이 참여하도록 열어놓았으며, 강의실에서 하는 말도 달라졌다. 옷차림까지도.

나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몇가지 제안을 해보자면 이렇다.

첫째, 학부 여성학 수강생 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수강인원은 100명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는 강의하는 동안 학생들에게서도 많은 것을 배운다. 여성학 강사도 강의를 하면서 변화한다. 학생과 교류할 기회가 많을수록 여성학 강사는 학생을 더 많이 잘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100명, 200명의 학생들과 교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학생들의 문제의식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의 발표나 토론을 통해서이다.

변화를 위한 실험은 학생과 강사 모두에게 필요하다. 나는 학생들이 발표한 '피임에 관한

대자보'를 강의실 건물에 붙이면서 '실천'했다는 자긍심을 학생들과 나눠 갖는다. 반응없는 다수의 학생들을 앞에 놓고 여성학을 '말하는' 것은 학생과 강사 모두를 지치게 한다.

둘째, 영역별로 세분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목표에 따라서도 분화될 필요가 있다. 한학기 동안 성, 가족, 노동, 문화, 운동을 모두 '실천적으로 강의하라'는 말도 안되는 조건속에서 강의를 하는 여성학 강사들은 '나는 여성학 강의를 할 자격이 없는 것 같다'는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여성학 영역별로 학부여성학 수업이 세분화되어 있는 학교가 많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성학'이라는 개론 수업만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여성학을 보다 이론적으로 강의하는 수업과 실천적으로 실험하는 내용의 수업으로 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다 심화된 이론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수업과 '만들기', '바꾸기', '뒤집기'를 시험하는 수업이 만들어져야 한다.

요즘 연예인이나 작가들도 학위는 없지만 전문가로서 강단에 서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게 제도 노하우가 쌓인 운동가들이 있다. 여성학 강사의 자격조건도 학교마다 박사학위 이상, 여성학 강의 ○년 이상이라고 못박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성운동단체에서 오랫동안 실무를 했으며 강의능력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임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셋째, 학교마다 조건이 다르겠지만 총여나 여학생 자치모임과 여성학 강사가 네트워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학과의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아닌 경우 여성학 강사는 그야말로 개발의 도토리다. 학교에 소속감을 갖기 어렵고, 학교안에 근거집단도 없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문화를 읽어내기 힘들다. 함께 세미나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하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강의와 학내 여성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험들을 해나간다면 강사 스스로도 '실천'의 경험을 할 수 있다. 총여와 강사 모두 서로에게 지원세력으로 관계맺을 수 있다면 여성학 강의는 '교실에 갇힌 담론'으로 남지 않게 된다.

또한 신촌 중심의 여성운동의 흐름을 학교마다 연결할 수 있다. 이번에 시립대 총여는 미스코리아대회 반대를 위한 불매운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카페 고마에 드나들면서 '유명한' 여성운동가들을 만날 기회를 많이 가졌다. 프리위의 활동을 보기도 하고, 다른 대학 총여가 써놓은 대자보를 보고 감탄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문화적 자극에 힘을 얻었다.

넷째, 여성학 강사들간의 협의체가 필요하다. 작은 규모라도 강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강의안을 함께 개발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야 한다. 공동으로 매체를 구입해서 함께 활용할 수도 있다. 각자 활동의 내용이나 문제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족한 지식이나 방법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여성학 강사들이 새로운 지식이나 이론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여성운동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영페미니스트들과의 네트워킹도 필요하다. 이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실험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가 예전에 '여성에게 경제적 독립은 필수다'라고 말했다면 이들은 '프리위'를 만든다. 이러한 실험이 바로 우리의 경험으로 축적되고 있다. 이들과 연계하고 함께 활동하거나 새로운 운동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과 어떤 언어와 몸짓으로 이야기할 것인가를 알 수 있으려면.

발제 2-2. 강의실 안/밖에서 - 여성학 강사들의 경험¹²⁾

신경아 (서강대 강사)

여성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학내외의 기반을 갖지 못한 강사로서 현재 '우리들 자신'이 하고 있는 여성학 수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객관적인 또는 주관적인 이유로 인해 부딪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은 어떤 것이며 그것들에 대해 각자는 어떻게 대응(또는 적응?)하고 있는가? 이 문제들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처리에서 벗어나 여성학 수업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작업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현재 여성학을 강의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견해를 물은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업의 구성과 관련한 문제

여성학 수업은 경험과 일상생활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해서 여성/남성으로 길러진 개인의 의식과 행동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강사들은 다양한 수업방식과 구체적 자료, 가능한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수업을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학 수업에서 중요한 점으로 강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수업 구성에서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 기회의 제공, 특강의 활용을 통한 전문적이고도 폭넓은 문제의식과 관점의 소개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강사들은 교과내용과 토론주제, 수업진행방식 등을 결정하는 데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수업방식에서도 강의, 조별토론, 쪽글쓰기, 시청각 자료 이용, 발표, 실습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 쪽글과 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수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수강인원의 제한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대체로 50명 이내로 수강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수강인원이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강의가 많은 상황에서는 여성학 수업이라고 해도 일방적인 강의나 조별토론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운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할 때, 특히 여성학 수업에서는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강인원의 조정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또 여성학 수업의 체계화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남녀공학 대학에서는 여성학이 교양과목 내 개론 수준에서 1-2 과목 정도 개설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연구영역별 강의와 심화된 과목의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12) 이 글은 여성학 강사들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을 완성하기 위해 이숙경(시립대 강사), 김혜장(상지대 강사), 김경희(이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정진주(국민대 강사), 신경아(서강대 강사)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2. 학생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학생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강사들은 여성학 수업의 특성상 가능하다면 개인적인 만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강사로서 학생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강사들은 수업후 일정 시간을 할애하거나 통신을 이용하여 학생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 학생들 역시 수업내용이나 과제물, 개인적인 상담을 위해 강사들과 만나기를 바란다. 따라서 교내 컴퓨터 통신망에 교과목 방을 만들어 학생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갖거나 보고서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대학신문의 일정 지면을 여성학 강의와 관련한 정보 제공과 의견교환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경우 강사들이 적극적으로 투고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강의중인 학교의 여학생 자치 모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여학생 자치 모임은 여성학 프로그램을 학내에 정착시키고 새로운 내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든든한 지원집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여성학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여성학에 관심을 갖도록 여학생 자치 모임의 회원과 여성학 강사가 적극적으로 관계맺기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사들에서 먼저 개인적으로 관계맺기를 시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여학생회가 관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협조를 해주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여성학 강사 모임을 조직하여 공식적으로 여학생회 등 자치 모임과 협력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3. 학교와의 관계에 대하여

여성학 강사들이 대학 당국에 요구해야 할 문제로는 수강인원의 조정, 특강 등 강의지원 비용 제공,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강의실 배정, 여성학 담당 조교 배정, 여성학 과목 개설과 관련된 협의 등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협의는 개별 강사 차원보다는 각 학교 내 여성학 강사 모임을 주체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강사와 대학 당국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없으며 일부 대학(예를 들어 서울시립대)에서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다소나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업환경 등 강사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한 예를 들면, 특강의 경우 학교에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강사들 개인이 자신의 강사료 중 일부를 떼어 특강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 책정되어 있는 특강비의 수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성학 수업의 특성상 다양한 수업자료와 수업방식을 활용하므로 조교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수강인원이 150명을 넘는 대형 강의의 경우 담당 조교가 따로 배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수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밖에 여성학 강사실의 설치와 학내 성폭력 상담소 등 여성문제 담당기구 설치에 대한 요구도 제시되었다. 여성학 강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기존의 강사실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리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타교과목 강사들과의 긴밀한 관계도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내 여성문제 담당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우므로 여성학 강사 모임 등 공식적 통로를 통해 여학생 자치모임과 협력하여 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되었다.

4. Networking의 필요성 : 여성학강사협의체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여성학 강사들이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작업으로 지적한 것은 여성학 강사 모임의 조직화이다. 여성학강사협의체는 여성학회 내에 둘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도 가능하겠지만, 내적인 결속력과 외적인 공식적 교섭력을 갖추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먼저 여성학 강의의 내용과 수준을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는 학교나 강사에 따라서 편차가 대단히 크고 일부에서는 여성학 수업이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또 여성학 관련 과목이 다수 개설될 경우 각 과목간의 연계가 부족하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여성학 관련 과목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강사협의체를 중심으로 2년에 1회 정도 여성학 강의에 관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여성학 수업의 방향, 강의자료, 강의방식, 강의내용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0년대 들어 여성학 강의는 늘어났지만 강의하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성학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학생들은 두 자녀 가정에서 자라다보니 성장과정에서 특별히 차별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좀더 깊이있고 이론적인 접근을 하면서도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거리를 개발하고 강의방식을 개선하는 작업이 급선무다"(김혜장, 상지대 강사)라는 지적처럼, 여성학은 이제 양적으로 확대된 대중들의 욕구를 정확히 읽고 그들의 인식과 실천의 질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강사들간 상호교류를 위한 협의체의 형성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협의체가 대외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다. 대학 당국과 각 학교내 학생회 기구들과의 관계맺기에서 협의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협의체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한 두 가지 더 제시하면, 무엇보다도 강사료 수준의 조정을 지적할 수 있다. 강사료가 턱없이 낮고 학교간 편차가 크며,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책정되어 대형강의의 경우 강사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강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또 여성학 교육의 질을 고려할 때, 각 학교에서 여성학 담당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진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도 지적할 수 있다.

발제 1. 이제 시작이다 - 서울대 「여성학 협동과정」의 경우

배은경 (서울대 강사)

서울대의 여성학 협동과정은 1999년 1학기에 개설되어 이제 막 첫학기를 보내고 있는 중이다. 그런만큼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운위하기는 이르며, 여기서는 아마도 탄생 과정과 첫 걸음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특수성들을 음미해 보는 것에 그쳐야 할 것 같다. 그 어떤 공식적 견해 또는 '정리' 라기보다는, 발표자 각자가 (중개는 서울대 여성학 협동과정, 또는 좀더 넓게 서울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페미니즘 연구의 흐름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각자의 자리에서 말해 보고 토론거리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발언해 보고자 한다.

• 서울대 여성학 협동과정 개요

1. 명칭: 여성학 협동과정 (Graduate Collaborative Program in Gender Studies)

2. 소속: 서울대학교 대학원

주관대학: 사회과학대학

실무기관: 사회과학연구원(서울대 사회대의 통합 연구소)

3. 설립목적:

여성학 협동과정은 기본적으로 여성관련 연구와 교육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고, 연구와 교육의 성과에 기초하여 여성관련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여성운동의 방향제시에 도움을 주는 등, 사회봉사의 목적도 겸비한다.(서울대 대학원 여성과정 설립안)

1) 연구

ㄱ. 여성의 현실 및 양성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학제적이고도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학문으로서의 여성연구를 확립한다.

ㄴ. 한국사회의 현실개선과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성관련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제공한다.

2) 교육

ㄱ. 현실에 대한 이해와 이론적 역량을 두루 갖춘 전문적인 연구 인력을 양성한다.

ㄴ. 여성연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한다.

3) 사회봉사

ㄱ. 여성분야 현장과 연계된 조사연구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여성관련 정책수립에 기여한다.

ㄴ. 연구와 실천의 현실적합적인 연결을 이루어 한국사회의 올바른 여성운동의 방향 제시에 도움을 준다.

4. 운영방향

여성연구는 학문적 특성상 학제적 성격이 강하고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지만, 동시에 기존 분과학문과는 구분되는 독립적 학문으로서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대의 여성학 협동과정은 여성관련 전 학문분야를 다루며, 각 분야간의 학제적 성격을 갖추면서도, 독자적인 연구분야를 확립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ㄱ. 각 분과학문에서 여성관련 주제를 다루는 교수들의 협동을 통해 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수행한다

ㄴ. 참여분과는 사회과학, 인문과학 및 생명과학을 포괄한다

ㄷ. 여성학 협동과정은 현 학과 체제로부터 준 독립성, 준 자율성을 가지는 교육단위로 한다.

5. 기구구성 학사위원회(15인 이내의 여러 단과대학 교수로 구성),
주임교수(사회과학연구원장), 교수진

6. 학사제도 현재 석사과정이 설치되었고, 박사과정은 추후 설치할 계획이다.

학위명은 참여 해당 대학의 학위수여 규정에 따르고 '여성학 전공'을 명기한다 (예: 문학석사-여성학전공). 수료, 학위요건, 입학전형 등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규정에 준한다.

7. 커리큘럼 99년 1학기에는 <여성학의 이해(team-teaching, 한정숙)>, <페미니즘 이론 연구(양현아)>, <한국사회와 여성(정진성)> 3과목이 개설됨. 앞으로 운영결과에 따라.

<여성학의 이해>, <페미니즘 이론 연구>, <여성학 연구방법>, <한국사회와 여성>, <여성사연구>, <여성운동연구>, <성과 계급>, <성과 가족>, <여성노동연구>, <여성복지연구>, <성과 법>, <여성정책과 국가>, <성과 과학기술>, <페미니즘과 민족주의>, <성과 사회통제>, <가부장제 연구>, <비교여성연구>, <여성, 생명, 건강>, <문학과 여성>, <성과 심리>, <성과 종교>, <성과 미디어>, <성과 예술>, <성과 경제>, <여성학 특강> 등 다양한 과목 개설 예정.

• 설립 과정

대학원 수준에서 전문적인 연구성과를 산출해내고 여성학 교육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기관의 설치 요구가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은 1997년 말부터였다. 특히 사회과학대학의 통합 연구소인 사회과학연구원의 발의를 계기로, 대학원 여성학 협동과정 설치가 제안되었다. 1998년 2월에 여성학 협동과정 설치에 공감하는 여러 단과대학 교수들이 모여 추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사회과학연구원 원장인 사회학과 권태환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사회대(언론정보학과), 생활과학대학, 사범대학, 행정대학원의 중견 교수들이 참여하였다. 여기서 대체적인 방향을 논의한 후 구체적인 설립 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실무위원회는 사회학과 정진성 교수가 간사 역을 맡고, 인문대(서양사학과 한정숙 교수), 사회대(사회복지학과), 법대, 간호대, 행정대학원의 소장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실무위원회의 활동은 사회과학연구원의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사회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여성 연구를 전공하는 두 명의 여학생이 조교로 참여하였다.

실무위원회에서는 국내외의 여성학과 및 여성학 협동과정의 현황 및 서울대 내의 여성학 관련과목 현황을 파악하고, 서울대 내의 타 협동과정의 운영도 참조하면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갔다. 논의과정에서 '연구중심'이라는 방향성에 합의하였고, 서울대 내의 타 협동과정의 주임교수와 이대 여성학과 주임교수를 공식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으며,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설치안을 마련하였다.

마련된 설치안은 추진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거쳐 1998년 5월 대학본부에 제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직접 운영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협동과정 설립 취지에 공감하고 앞으로 운영을 지원하거나 직접 참여할 의사가 있는 각 단과대학의 여러 교수의 서명을 받아 함께 제출하였다. - 사회대: 사회학과(4명), 사회복지학과(2명), 언론정보학과(1명), 인류학과(2명), 정치학과(1명), 인문대: 국문학과(2명), 영문학과(1명), 국사학과(2명), 서양사학과(1명), 고고미술사학과(1명),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가족학과군(4명), 법과대학(3명), 사범대학(1명), 자연과학대학(1명), 의과대학(1명), 간호대학(1명), 행정대학원(2명)

설립안이 서울대 본부에서 통과된 것은 1998년 10월이었고, 1999년 1학기부터 학생을 모집하게 되었다. 다만 1999학년도 서울대 대학원 신규입학정원이 동결된 상태였으므로 주관대학인 사회과학대학 대학원에서 3명의 정원을 배정받았다. 사회과학대학에서 협동과정 사무실과 연구실을 위한 공간을 제공받고,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조교 인력을 제공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 설립배경

구체적인 설립과정은 이와 같이 비교적 단기간에 순조롭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구체적인 설립준비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적어도 대학원 수준에서의 여성학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내에 널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 전사회적인 여성학 연구에 대한 필요성 증대에 대한 인식
- 전체 학생의 30%를 넘어서기 시작한 여학생 비율과, 이로 인한 캠퍼스의 분위기 변화.

특히 1997년부터 활발했던 '성폭력 학칙제정' 운동과 이와 관련한 학내 여학생운동의 활성화로 학내에서 '성' 문제가 빈번하게 쟁점화됨.

- 성문제 쟁점화와 더불어 '체대로 된' 여성학 교육에 대학 학생들의 요구 증대
- '서울대'가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자기반성(?)

등이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90년대 이후 총여학생회, 여학생 자치회, 관악여성모임연대 등 조직형태는 바뀌어 왔지만 학내의 여학생 조직들은 단 한개의 교양강좌로 구성된 서울대의 여성학 교육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줄기차게 소위 '체대로 된' 여성학 프로그램의 도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이 아무리 제기되어도 이것을 제대로 받

아 추진할 만한 주체가 학내에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맡길만한 뚜렷한 주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자신이 직접 책임을 맡기에는 역량도 의지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던 많은 교수들이 '대학원 여성학 협동과정'이 생겨 그러한 역할을 맡아주기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협동과정이 사회대 주관으로 설립되고 사회과학대학 행정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는 특히 학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정한 발언권을 가진 교수 집단들 사이에서 생겨난 여성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대학의 경우 1991년 이후 대학원생들의 여성관련 연구가 급증하여 지금까지 각학과에서 나온 석박사학위논문만 30여편에 이르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이 과정에서 현재 상태로는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에 (가령, 전문적인 논문 지도 등) 어려움이 있다는 공감대가 일부 학과의 faculty 안에서도 형성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공감대 형성의 바탕에는 단지 '여성학'에 대한 요구 뿐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민주화'의 진전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가령 사회학과와 의 경우 91년 이후부터 졸업 대학원 자치회가 여성학관련 과목 개설을 요구하면서 교육내용이나 강사 초빙에 이르기까지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faculty가 이것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전반적인 교과내용에 관한 대학원생의 참여 및 발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학과 내에서 공감대를 얻고 제도화되는 과정과 맞물려 있었다. 이는 기존 학술제도와 '다른' 대안적 학술 실천을 모색하던 80년대 학술운동이 90년대 초가 되면서 '대학 안의' 학술 실천에 눈을 돌리게 되면서 교수와 학생이 '함께' 새로운 학술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대의명분이 힘을 갖기 시작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울대 사회학과와 의 경우 이러한 '민주화'과정이 상당부분 '대학원 자치회'를 구성한 대학원생들의 활발한 문제제기에 의지하고 있었고 바로 이 대학원 자치회활동의 중심에 여성 석,박사과정생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자치회가 요구한 '대안적' 교육과정의 중심에 여성 또는 페미니즘이 자리잡게 된 것은 자연스런 결과였다. 이후 몇 번의 교수 총원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관행들이 제도화되었고, 사회학과 최초의 '여성' 교수가 총원된 것도 일정정도 이러한 제도화의 성과였다. faculty에서도, 또한 '여성' 교수 자신도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고 이것이 단지 '학생들의' 요구가 아니라 한국의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하면서 협동과정설치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제 시작이니까...

사회학과와 의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과정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적어도 사회대 내에서는 많은 학과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말하자면 각 분과학문마다 페미니즘 내지 여성 연구의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만 이것이 각 학과 별로 또는 각 개인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어려웠는데, 여성학 협동과정은 이러한 각 분과학문에서의 열기를 적절하게 네트워킹함으로써 서울대 내에 '페미니즘' 또는 '여성학적' 지식 공동체를 구성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협동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을 전문적인 연구자로 길러 낼 뿐 아니라 협동과정의 운영을 통해 전체 지식사회의 분위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 강의의 경험).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거창한 밑그림이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여기서의 토론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Networking 작업

• 여성학과를 위한...

발제 2. 서강대에서 여성학(gender studies) 개설 준비과정

조옥라 (서강대 여성학연계전공 주임)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불평등한 현상인 성문제(gender issue)에 관심을 지닌 교수들이 Peggy McKintosh의 여성중심적 관점에 관한 강연을 계기로 함께 모여 서강공동체에서의 gender issue에 대한 체계적인 토론을 시작한 것은 1994년 3월 17일이었다. 특히 ChenMei의 여성학 workshop에 참여하고 돌아온 김인자 당시 교양학부장의 재정적, 공간적 지원이 이러한 토론모임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기반이 되었다. 이후 1994년 봄학기에는 매주 또는 격주 간에 만나 서강대학에서의 여성학연구, 교육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었다. 초창기 참석자는 교양학부의 김인자, 김형립교수, 영문과의 신경원, 사회학과 조옥라, 정의과 강정인, 사학과 임상우 교수였다. 참석자들은 모두 현대 학문에서 여성연구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남녀공학인 서강대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주어지지 않고, 서강공동체 내의 여성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려는 노력조차 없었다는 현실에 공감하게 되었다. 한학기 동안의 토론을 기반으로 여성학연구모임이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으며 그 목적을 여성학강좌 개발, 여성관계연구 확대, 서강공동체의 성차별현상 개선등으로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한 지원은 U. B.(United Board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al Institute in Asia)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연구지원서를 준비하는 한편 연구모임은 매학기 여성학관계 과목을 2 과목 씩 개설하고 가능한 전임교수가 담당해서 하기로 하면서 그 첫번째 학기인 1994년 가을 학기 「여성과 문학」, 「유교문화와 여성」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후 매학기 마다 회원교수는 각기 전공과 연관된 과목개발에 주력하게 되었다.

여성학 강좌의 개설은 회원들의 협력으로 별 무리없이 진행이 되었으나 계획되었던 재정지원은 U. B.측의 사정에 의하여 연기되었으며, 1995년 봄 한국을 방문 중인 U. B. 책임자와 지원자 대표인 조옥라와의 면담을 거쳐 다시 지원서를 1995년 11월에 제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6년 6월 확정 통고는 받았지만 지불은 약간의 사고를 거쳐 결국 1997년 2월에 지원금을 받게 되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여성학 Program개발과 연구 지원, 여성문제 사회조사 등을 병행하여 1997년 봄학기 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U. B. 지원을 계기로 여성학에 관심있는 교내 교수들을 맞아 들여 현재는 11 명이 되었다. 현재 계획 중인 연구모임의 활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 여성학 강좌 확대--현재와 같이 전임교수 위주로 매학기 두 과목 이상의 여성학 강의를 교양학부 과목으로 계속 개설하여 여성학을 심리학의 수준인 '부전공' 과정으로 발전시키려고 했다. 이때 서강대 여성학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현실성 있는 Gender

Program으로서의 특징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다가 1998년 학부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전공 다변화의 일환으로 연계전공과정을 시도하게 되는 학교 정책의 변화로 우리의 목표는 더욱 단축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연구가 급격히 진행되고 1998년 2학기에 여성학연계전공이 정식으로 학교 제 2, 3전공으로 선택가능하게 되면서 1999년 1학기부터 전공학생을 모집하고 지도하게 되었다. 11명의 학생이 제 2, 3 전공으로 신청하고 현재는 9명이 등록중에 있다.

2) 서강공동체에서 여성의식 강화--여성문제와 관련된 서강공동체 문제를 점검하고, 여성문제전문가를 초청한 강연회를 개최하여 일반의 여성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를 장만한다. 각 분야, 학생, 직원, 교수에서 직, 간접으로 작용하고 있는 여성문제의 실체를 공론화시켜 그 개선방안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장만한다.

서강대학의 여성학연계전공과정 설립을 기념하여 서강 여성의 날을 1998년 11월 20일 가졌다. 여기서 서강대 여학생과 여자 졸업생들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발표회를 했으며 아울러 '자기 만의 방' 연극을 관람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모임이었으며, 여성학 연계전공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날이기도 하다.

3) 현재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은 교수, 학생들의 연구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학내·외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작년(1998년)에도 대학원 여성연구회의 결성과 모임에 지원을 했으며, 계속해서 대학원생들과의 교류를 위하여 서강대 내에 여성연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제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하여 이 모임은 서강에서 여성학 강좌의 확대와 성차별 현상의 개선을 위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이번 봄학기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다.

【 서강에서 여성문제와 관련된 획기적인 사건 】

여교수와 총장과의 면담에서 서강대학 내 남성중심성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강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내 여성문제에 관하여 총장에 자문하는 '여성문화총장 자문교수'로 영문과 신경원교수가 임명되었다. 신경교수는 최근 재편성된 교원인사위원회에 여성교수 몫으로 새롭게 임명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교내에 더 파급된 것은 사실이다.

여성학연계전공 개설과정의 제도화에서 외부 기관의 지원, 내부의 준비, 다른 이해집단의 협력 등 복합적인 변수들이 작용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1144의 수치가 높음
여성학

【 서강대 학생들의 여성인식조사연구 】

2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여성의식 실태조사를 1997, 1998년 2년 했으며, 1999년 조사도 할 예정에 있다. 여성의식은 단과 대학, 전공에 따른 차이를 가장 크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기본적인 태도의 차이 뿐 아니라 여성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단과 대학인 경제, 경영, 공과 대학 그리고 이과 대학이 상대적으로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보다 보수적인 여성의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여학생들의 경우에도 교내외의 여성문제에는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졸업 후 취업, 가사노동, 자녀양육, 장래계획 등에 있어서는 독자성을 확실하게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은 희망 사항이며,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캠퍼스 내의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는 아직도 매우 둔감한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여성문제가 있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능력있는 여성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러한 면은 취업한 여자 졸업생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

서강대학에서 여성학 연계전공과정은 어떻게 자리잡을 것인가는 바로 이러한 asexual한 경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겠느냐에 달려 있다.

⊗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적 이해
→ 자비와 연대성.
→ 남도여 아니냐 여자의 페미니즘.

< 여성학 이론 or 여성학 사상의 확산 >
→ 연세 부자들의 활동이 더욱 증가

제도적 / 문화적 부합

발제 3. 연세대의 여성학협동과정 준비상황

여성학을 도입
· 여성학 연계.

조혜정 (연대 여성연구소장)

⊗ 여성학과 / 여성학사내 K학과 상설.

연세대에서는 1994년부터 문화학 협동과정을 추진한바 있다. 현재는 문화학과 gender studies를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gender & cultural studies 협동과정의 개설을 구상하고 있다. 문화학 협동과정 설립신청서와 gender & cultural studies 협동과정 설립신청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한다.

⊗ 여성학 전공자의 진로
→ 연세공부처
→ 특수한 분야 전공.

【 참고자료 1. 문화학 설립신청서 】

1. 전공 분야의 명칭

명칭은 "문화학 전공 (Graduate Program in Cultural Studies)"이라 한다.

2. 문화학의 중요성

사람들이 사회를 만들고 살아가는 과정을 파악하는데 있어 "문화"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특히 급격한 전환기에는 자기 문화에 대한 성찰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20세기 중반부터 개별 국가나 전지구적 차원에서 위기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일어 왔으며, 위기 극복을 위한 문화적 대안이 모색되어 왔다. 1980년대 이후 서구에서는 "문화 연구"라는 이름 아래 기존의 학문 분과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연구분야가 만들어져 학제간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문화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경대학교에서는 1983년 <종합 문화 연구과>가 신설되어 문화 연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타이완과 홍콩 등지의 대학에서도 <공간 문화 프로그램>(대만대학교)이라든지 <문화 연구 센터>(청화대학교)가 만들어져서 "문화와 공간", "영상과 문화", "세계화와 지역화" 등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정치 제도적 발달에 주력해왔던 전기산업사회에 반해서 후기산업사회는 "일상성"의 질서를 파악해야 하는 시대이며, 일상적 상호작용 원리와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역사와 사회변동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해 낼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이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동안 압축적인 경제 성장의 과정을 거치온 한국 사회의 문화적 위기는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세대간의 단절에서부터 가족과 지역, 민족 문제에 이르기까지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붕괴가 현저해지고 있는데, 이런 문화적 위기를 해결해 갈 적절한 언어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 사회를 따라잡기에 급급했던 식민지적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점검을 통한 문화 만들기 작업을 미처 해내지 못한 것인데, 최근 들어 정치, 외교, 경제 등에서부터 문학과 철

학, 역사학, 심리학, 사회학에 이르기까지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한국과 같이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을 거친 사회는 근대적 합리화와 탈식민주의적 주체화와 탈근대적 공동체 형성 작업을 동시에 해야 하며, 특히 여러 문화가 수시로 만나가는 전지구화 과정에서, 또한 거대한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정보 환경 속에서, 급격한 문화 변동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문화적 생산과 소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지구적으로는 가속화되는 시대 변화 속에서 방향감각을 잃어가는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국내적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내지 유지를 위한 인력 양성이 시급한 것이다. "문화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문화산업은 팽창해가고 있어서 문화생산 역량을 기르고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파악해가는 것이 필수적이며, 실제로 외교 분야나 기업체에서 지역문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상품을 만들어내야 할 시점인데 대학에서 이런 작업을 해 낼 문화적 감수성을 가진 창조적인 인재들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기업계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문화에 대한 이해의 작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문화 인류학의 전유물로 간주되어 왔던 "문화" 분야는 이제 모든 학문 분야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학제간 협동을 통한 집중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인문학적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 "문화"를 중심으로 현시대 상황을 연구하는 학제간 협력 프로그램 개설은 시의적절한 일일 것이다.

3. 문화학 분야 대학원 학과간 전공 과정 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한국사회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 GNP 1만불을 기록하게 되었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산의 시대에서 소비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문화적 삶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소비주의가 삶을 극히 피상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와 동시에 전지구적 자본주의화가 가속화되면서 심한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문화적 접면 현상과 압축적 변동의 와중에서 성별, 세대간, 또는 지역간 문화적 마찰 역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지속적 경제성장도 어려울 것이며,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린 인문학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를 주제로 갖가지 학제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문화연구는 단순한 기법적인 훈련으로 가능한 분야가 아니라는 것이다. 긴 호흡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인문학적 훈련, 특히 미학적 감수성 훈련을 필요로 한다. 시대의 전환점에서 사회의 다수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상적 삶과 그 삶을 구성해 가는 능력을 포괄적으로 길러 가는 토양이 마련되어야 하며, 훌륭한 문화 관련 전문가들은 그 토양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각각의 영역에서 축적해온 인문학의 전문적 성과들을 토대로 유기적인 학제적 협동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

4. 문화학 관련 학문들

1) 인문 기초학문 계열

철학, 역사학, 심리학, 사회학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문화 관련 연구를 해 왔다. 그 연구들은 19세기에 서구에서 마련된 근대 학문체계의 틀 안에서 전개되어 왔는데, 이제는 이러한 개별 분과에서 이루어진 문화 연구를 시간과 공간의 축 위에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국민국가 단위가 중심이 된 전기 산업사회적 질서를 넘어서서 전지구화와 지역화, 후기 자본주의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2) 어문계열

언어와 문학 분야 역시 초기부터 문화현상을 다루어왔다고 할 수 있다. 2년 전에 연세대학교 내에 신설된 "비교문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학 연구의 지평을 넓힌다면, "문화학 프로그램"에서는 문학과 문화, 그리고 역사를 연결해 넘으로써 포괄적인 문화 연구 작업을 하고, 아울러 지역 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갈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 연구

영미학계에서는 1980년대 이후 "문화 연구(Cultural Studies)"라는 이름으로 문화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기존의 학문 분과와 예술적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급변하는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설립하고자 하는 "문화학 프로그램"은 급속한 속도로 탈근대와 탈식민담론을 형성해가고 있는 "문화 연구" 학계의 연구 성과를 심분 활용하게 될 것이다.

4) 문화인류학 분야

문화인류학은 지리상 발견 이후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다루어온 학문분과이다. 학문 형성 초기부터 서구 문명에 대한 성찰과, 비서구 사회들이 강제로 서구 중심의 근대 기획에 편입되면서 일어나는 문화 변동을 다루어왔다.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회집단의 문화적 적응과 인류 전체의 진화를 다루면서 인간 행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내고 변화하는 세계사적 현실을 적절하게 해석해 낼 인문학적 패러다임을 만들어왔는데, "문화학 프로그램"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5) 문헌 정보학 분야

정보기술의 발달은 현대 문화 현상을 질적으로 바꾸어가고 있다. 뉴미디어의 발전 및 정보유통과 관련한 문화 연구를 위해 문헌정보학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5. 문화 관련 교육 및 연구의 교내 상황

6. 추진 계획

7. 교원 및 시설 활용

8. 교과과정

1) 교과과정의 특징

“문화학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학부 전공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성은 기존의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진 성과들을 확실하게 흡수하여 종합하는 한편,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학문적 질문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실험 작업을 하는 데 있다. 교수방식에 있어서도 같은 주제를 두고 각기 다른 분야에서 연구해온 교수들이 함께 세미나를 개설한다든지, 교수와 현장 경험이 많은 제작자나 기획자가 함께 진행하는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새로운 실험작업을 해 갈 것이며, 학제간 협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함으로써 그동안 불필요하게 분산되어온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동시에 연결해 나갈 것이다.

프로그램은 크게 네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 ▶ 새로운 인문학적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작업,
- ▶ 그동안 국민국가 단위로 이루어져왔던 지역 연구를 통합하거나 세분화하면서 주제 중심으로 파고드는 작업,
- ▶ 후기 산업사회의 문화현상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작업,
- ▶ 구체적인 현장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문화관련 전문가를 기르게 될 인턴제 성격을 띤 응용작업을 중심으로 한다. 인턴제를 통해서 산학 협동적 작업을 활성화할 것이며, 관련 행정기구와 민간 사회단체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실험적 작업들을 해 나갈 것이다.

학생들은 이방문화 체험을 통하여 문화적 감수성을 길러갈 것이며, 동시에 문화 관련분야에서 한 학기 이상 인턴과정을 거침으로써 문화비평가이면서 문화생산자로서의 자질을 길러 가게 될 것이다. 박사과정 학생은 입학 전이나 과정 중에 이방문화를 체험하고 연구하는 기간과 인턴제 훈련을 반드시 갖도록 한다. 전지구적 자본주의화 속에서 급격하게 형성되고 있는 세계 공통적 문화감각을 지닌 외국 유학생들의 입학을 장려할 것이다. 특히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인 교포들의 유민적(diasporic) 전망을 살려내기 위해 그들의 입학을 장려할 것이며,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교육도 실험해 나갈 것이다. 강의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한다.

가) 석사과정

9학점의 기초과목, 문화학 입문, 문화연구 방법론, 그리고 문화기획 연습을 반드시 이수하고 최소한 3학점의 인턴 경험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24학점을 본 과정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해야 한다.

나) 박사과정

9학점의 기초과목, 문화학 입문, 문화연구 방법론, 그리고 문화기획 연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박사과정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60학점 중 48학점을 본 협동과정에서 개설한 과목 중에서 취득해야 한다. 6개월 이상의 이방문화 경험과 6학점의 인턴경험을 필수로 한다.

9. 기대 효과 및 졸업생 진로

1) 기대 효과

급변하는 시대를 읽어낼 인문학자와 문화기획자들을 배출해냄으로써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찾아가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여러 분야에서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인재들을 길러가게 될 것이다. 본과별로 이루어져 온 연구 성과를 문화적 차원에서 묶어냄으로써 경제주의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해내고 새로운 시대의 인문학적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학자들과 단순한 언어전문가가 아닌 지역전문가를 배출해 냄으로써 본격적인 세계화와 지역화 시대를 열어가는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2) 졸업생의 진로

- 후기 산업사회 현상을 다루어낼 인문학 이론 분야
- 전지구화 시대의 흐름을 아는 문화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기업계와 기타 국제교류 관련 분야
- 정부 관련부처의 외교, 문화 행정, 정책 담당 부서
- 현대적 문화감각을 갖춘 문화 예술 비평계와 영상제작을 포함한 문화 생산자
- 박물관과 문화 전시 분야
- 대중 매체의 기획, 제작, 비평, 모니터 분야
- 지역주의 사회 형성을 위한 사회 교육과 지역 문화 육성을 위한 기획 운영 분야
- 의료, 건축, 환경 관련 분야
- 인터넷 등 정보문화 분야

10. 부록

참여 교수 의견서, 참여학과 지원 동의서, 주임 교수 동의서, 주임교수 이력서 첨부

【참고자료 II. 여성학협동과정 설립신청서】

1. 전공 분야의 명칭

명칭은 “여성학 협동과정(Graduate Program in Gender and Cultural Studies)” 이라 한다.

2. 여성학 전공의 중요성

성(젠더, gender)에 관한 연구는 20세기 후반의 인문, 사회과학의 지평을 재조정할 만큼 철학적, 이론적 사유의 기본적인 전제를 뒤흔들면서 인문, 사회과학의 근본적인 물음들 - 예컨대 주체라든가,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 의 방향을 새롭게 조명하는 혁명적인 지적 탐구작업으로 등장하였다. 더 이상 과거의 전통적인 인문학, 혹은 사회과학의 방법론적 구분이나 탐구영역 및 대상의 고유성이 유효하지 않을 만큼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는 여성학은 철학은 물론이고 문학(국문학을 포함하여 모든 외국문학도 이 영역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역사학, 미학 등 인문학의 여러 영역들과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과 같은 사회과학의 영역, 그리고 생물학과 과학사등의 분야와 같은 기초 자연과학의 일부영역과도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분야이다. 인문학의 여러 분야에서 이 주제에 접근할 때에는, 이를테면, 여성의 경험이 어떻게 고유한 사유방식과 예술적 표현양식을 창출하였고 여성의 언어가 어떻게 기존의 언어나 사유체계를 도전하는가를 다룬다. 사회과학에서는 남성 여성의 정체성

과 사회내의 개인으로서의 주체성 형성과정,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구성과 일련의 사회적 제도들과의 관계 등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여성학의 이론적 탐구가 밝혀낸 전제들을 적용하여 자연과학과 성정체성, 대중문화와 여성의 이미지, 법적 평등과 성정체성 등 탐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Women's Studies 혹은 Gender Studies라는 이름의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프로그램이 70년대부터 그 뿌리를 내렸고 미국의 대학가운데 이러한 학제적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곳은 650여군데에 이를 만큼 새롭고 종합적인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있는 분야이다.

3. 여성학 전공 과정 설립(대학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1) 여성학과 관련된 초창기의 대학원 협동과정 프로그램들은 주로 여성학(Women's Studies)에 집중되어 있었고 명칭 또한 여성학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았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가 그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 분야의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신설한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학부와 대학원과정 모두 여성학으로 학위과정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여성학이론과 문화실천영역에서의 이론적 발전이 거듭됨에 따라, 초창기의 프로그램이 갖고 있던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나 여성중심의 본질론적 논의의 성격에서 벗어나 젠더의 구성과 섹슈얼리티, 육체와 계급이란 고도로 복잡한 이슈들이 연구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러한 질문들이 젠더의 사회문화적 실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이 급속도로 공유되었다(인디애나주립대학(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의 경우는 이런 이론적 진화를 반영하면서 Women's Studies Program의 명칭을 Gender Studies Program으로 바꾸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제 여성학이라고 하는 좁은 분야를 통하여 사회내에서의 젠더의 구성, 실천문제들을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젠더와 문화간의 관계를 천착할 수 있는 구심점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되었다.

(2) 젠더라고 하는 문제는 그 정의 자체가 복잡한 이론적 우회로를 필요로 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사회적인 성차(性差)에 관한 연구만을 요하는 연구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생물학적인 현상으로서의 성과 사회적인 실천으로서의 성이 어떻게 타협하는가를 연구하려면, 심리학(성심리학 및 정신분석학), 문학(성차의 재현과 언어의 문제), 사회학, 문화연구, 인류학(성의 풍속등), 철학(사유와 인식에서 성이 개입하는 과정), 미학(성차의 재현과 표현 매개수단등), 역사학(성차가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방식), 정치학(이데올로기와 성정치학), 경제학(성정책, 노동, 생산관계의 문제), 교육학(왜곡된 성이 재생산되는 방식), 매체학(대중문화, 매스미디어와 성차의 재현 및 재생산), 정보학(정보의 균등한 분배와 성차의 형성) 등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젠더의 개념화와 젠더가 구성되고 재현되며 재생산되는 방식을 연구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다양한 이론적 방법론적 접근을 모을 수 있는 공동연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3) 여성의 억압이라는 현상과 이를 종식하기 위한 역사적인 과제에서 출발한 여성학은 특히 서구에서의 포스트구조주의의 사유의 영향으로 더 이상 여성의 억압이라는 사회적 현상만을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었음이 분명하게 되었다. 여성, 남성의 섹슈얼리티, 그리고 이러한 성차가 문화적으로 재생산되는 방식을 연구하는 여성학은 이제 가히 첨단 학문

으로서의 위상이 공고하다 할 만큼 인문, 사회과학의 최신훈론들과 20세기의 주요 이론적 업적, 프로이트, 맑스의 이론과 생물학에서의 연구들을 접합하는 통합학문이므로 하나의 학문분야로서는 도저히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그를 바탕으로 문화산업에서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급속히 변화할 21세기의 새로운 생활방식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한 걸음 앞서서 새로운 문화창출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탁월한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다.

(4) 지난 4년간('94-'97) 연세대학교의 여학생처에서 주관한 여성학관련 과목들을 수강한 학생들의 수가 6866명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제 연세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들사이에서 위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태로는, 안타깝지만, 이들의 수강경력이 그저 교양과목 이수를 위한 것 정도로 인정되고 있을 뿐이므로 좀더 심도있게 젠더 연구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타대학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특히 우수한 성적으로 연세대학교를 선택한 많은 여학생들이 다가오는 21세기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실천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유와, 문화에 대한 왜곡없는 신선한 접근방식을 갖춘 이러한 인력은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을 비롯한 사회 각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보다 여성에 대한 편견이 덜한 국제사회에서의 의사결정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도자적 자질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5) 지난 50여년간의 인문학이 어떤 점에서는 사회와는 동떨어진 채 학문적인 재생산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여성학 프로그램은 과거의 인문학 전통을 달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전통인문학의 현실유리된 상태를 극복하고 사회적 문화적 실천을 통하여 끊임없이 대중과 교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천적 학문영역이다. 여성학 협동과정은 성평등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함으로써 기존의 남녀차별적 연세 교육체제 및 문화를 개선하게 하는 체계적인 구심점이 된다. 이러한 평등을 지향하는 교육, 실천프로그램을 연세가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연세의 지도적인 위치와 명성으로 인해 남녀평등 프로그램이 한국사회내의 다양한 문화집단으로 확산되게 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남녀평등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4. 여성학 관련 학문들의 주제적 연관성(생략)

5. 연세대학교내의 여성학 교육 및 연구상황

연세대학교 학부과정에 여성학을 전공으로 할 수 있는 학위과정은 없고 지금은 여학생처에서 교양과목의 일부로 개설하는 5개의 과목(여성학, 남녀평등과 인간화, 한국사회와 여성문제, 여성과 문학, 성과 남녀관계)이 있다. 전교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6개분야(영문학, 사회학, 인류학, 여성학, 간호학, 심리학)의 5개학과(영문학과, 사회학과, 간호학과, 생활과학대학내 여성고위경영프로그램, 심리학과)의 교수 및 강사선생님들이 각각의 영역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여 왔다. 또한 이 과목들은 담당교수의 강의뿐만 아니라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연구나 업적을 남긴 분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학생들의 호응도 역시 다른 교양과목분

야에 비하여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여학생처의 적은 인력에게 이러한 과목 운영과 외부강사 섭외준비등까지 총괄하는 일을 맡기는 것은 학교내의 행정부처를 혹사하는 일로 여겨지며, 이러한 관리와 운영을 공동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또한 여성학관련 과목을 수강한 많은 학생들이 여성학관련의 대학원 프로그램으로의 진학을 희망하거나 여성, 문화관련의 분야의 기획자로 일하기를 희망하지만, 현재의 연세대학교의 학부와 대학원의 구조는 이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여성학 관련과목 중 7개를 이수하면 여성학을 부전공으로 인정하는 서강대학교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비효율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보다 여성학과목을 훨씬 늦게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지식을 체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셈이다. 그 밖에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학과(학부 및 대학원의 학위과정), 동덕여자대학교의 여성학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여성학에 대한 지원, 계명대학교의 여성학프로그램, 카톨릭대학교의 성연구소설립등을 고려한다면,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이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일이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학만을 그 연구대상으로 삼는 위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여성학(젠더연구) 협동과정은 성차의 형성과 실천에 관련된 제반 분야의 이론적 연구를 그 기초로 하며, 특히 문화연구와 국제관계속에서 실천방안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21세기의 학문연구와 사회적 실천에 걸맞는 앞서가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성학관련 연구자들이 물론 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세대학교는 1995년 여성연구소의 설립을 통하여 여성학관련연구와 여학생들을 위한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의 여성연구소는 여성연구소를 교직원연구소로 지정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나 동덕여자대학교에 비교하여 볼 때 그야말로 미미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연구자개인들이 외부에서 받는 연구비의 일부만이 겨우 명목상으로나마 재정적인 유지를 가능케 할 뿐이다. 이 같은 열악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성연구소는 연세 여학생의 지위향상 및 여성연구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여성학에 관심있는 학생이나 교수들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계가 다소 부족했다. 여성학 협동과정 프로그램의 신설은 젠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총괄할 수 있는 행정적인 구심점이 마련될 것이며, 이 지점이 여성연구소와 연계될 경우 연구소는 연구를 위한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를 갖추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 여성고급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국제기구로의 여학생들의 진출을 돕기 위하여 연세 여학원과 국제학 대학원과의 교류방법 또한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6. 연세대학교 교수들의 여성학 관련 활동

(1) 학술회의

- 1985. 11. 학술발표회 「남녀공학과 여성교육」, 백양모임 주최
- 1986. 11. 남녀공학 4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남녀공학, 이대로 좋은가?」, 여학생처 주최
- 1995. 10. 6. 추계학술세미나 「여성과 직업」, 여성연구소 주최, 연세대학교 장기원기념관
- 1996. 5. 17. 국제 학술 세미나 「Envisioning Asia's University Co-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A PAN-ASIAN INTERNATIONAL CONFERENCE」, 여성연구소 주최, 연세대학교 알렌관

- 1996. 10. 25. 추계학술세미나 「여성, 남성, 대중문화」, 여성연구소 주최, 연세대학교 상경대
- 1997. 10. 7. 교육문화 공개강좌 「여성과 교육」, 여성연구소 주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 1997. 12. 6. 「여학생 교육 및 지도를 위한 Workshop」, 여학생처·여성연구소 주최
- 월례발표회(여성연구소 주최, 총 17회)

2) 저서

- 「연세여성연구」, 여성연구소, 1995-1998, 제1호-제4호.

7. 추진계획(생략)

8. 교원 및 시설활용(생략)

9. 교과과정(생략)

10. 기대되는 효과 및 졸업생 진로

21세기의 새로운 삶의 형식과 전지구적인 문화교류의 시대에 여성학 협동과정(gender and cultural studies)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의미와 효과를 갖는다.

(1) 다음과 같은 전문인력양성이 가능하다.

- a. 관련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학자, 교육자
- b. 보다 실제적으로 정책, 행정에 종사할 전문인력(특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 c. 국제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문화기획자, 여성전문인력 양성
- d. 국내대학에 빠른 속도로 신설되고 있는 문화관련학과와 여성학관련분야 교수요원
- e. 여성재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무요원
- f. 여성(교육, 건강)문제와 관련된 전문상담요원

(2) 기존의 학제와 학문들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gender 이론교육, 문화연구, 성정책과 문화정책을 담당할 전문인력 교육

(3) 국내외의 여성학연구, 문화연구와의 긴밀한 교류를 쉽게 하고 국제사회내에서의 연세대학교의 평등한 대학으로서의 위상확보

(4) 국제여성교류, 문화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구심점의 역할

(5) 연세대학교내의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정책수립 및 문화교육담당

(6) 남녀공학에서의 여학생들을 지도자로 교육시킬 수 있는 모델 제시

지정토론 1. 여성학의 외비우스띠를 감꾸어

강예린(달나라딸세포)

1. 출발

우선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입장과 (웹진)달나라딸세포¹³⁾를 함께 만드는 여해그림 친구들과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현실의 여성운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제반 학문의 sex-blind를 비판하며, 현실을 총체적으로 분석/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문이 여성학입니다. 따라서 여성학 즉 여성에 관한 분과학문을 만드는 과정 자체는 정치적인 과정이었으며, 여성학이란 끊임없이 제도밖의 현실과 계속적으로 대화하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여성학이란 기본적으로 제도의 안과 밖이 구분될 수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하에, 제도의 바깥에 위치한 자치모임의 한 구성원으로서 여성학의 제도의 밖과 안이 상호구성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정리해본 것입니다.

발제의 시작은 지난 번 워크샵 준비 모임에서 왜 '나는 여성학대학원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제 자신의 문제제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이른바 '페미니즘을 표방한다'는 우리 언어로 풀자면 '이땅의 딸들과 대화하고자' 하는 웹진을 만들고 있는 우리 중 누구도 여성학 대학원을 다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는 그랬을까' 라는 질문에 "누구 누구의 성향은 이렇고 저렇고, 그때의 상황은 이랬고, 저랬고..." 하는 식으로 과거의 상황을 더듬어 보는 것 이외에 공통의 답을 모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었나?" 라는 데에 대한 질문은 "어떤 문제의식으로 여해그림과 달나라딸세포를 만들게 되었나?"로 고쳐졌을 때만 일정정도 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논의를 위해서 글의 초점은 NGO라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제도적 여성학과 관계를 맺고 싶은가 하는 점에 두고자 합니다.

2. '달나라딸세포'를 만들어

(웹진)달나라딸세포 친구들은 세대적으로 보자면, 90년대 초/중반 대학내 총여학생을 부활시키거나 여성자치모임¹⁴⁾을 만들었던 또래들입니다. 이 또래의 세대적 경향을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졸업후 여성운동의 경험을 이어가는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기존 여성단체에 자원하는 방식보다는 집합적인 문제의식을 지속시켜 이에 합당한 모임을 만드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꽃, 프리위, 거미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딸딸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

13) 이하 딸딸. 저희 모임의 이름은 여해그림입니다. 그리고 여해그림이 만들어내는 웹진의 이름이 달나라 딸세포입니다.

14) 관악의 경우, 이른바 '총여학생회 논쟁'을 통해서 싸이클릭 운동으로부터 자유롭고, 각 단대의 자생적인 모임을 포괄할 수 있는 '연대체'로서 관악여성모임연대를 96년 결성하였다.

서 구성원의 개별 진로선택에 있어서, 여성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다듬는 실천의 공간으로서 여성학과를 택하는 경우가 윗세대에 비해 적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해그림은 졸업을 앞둔 4학년 여름방학부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작업으로 여성운동의 지형도를 그리기 시작했으며, 여러 단체들을 찾아다니며 자문을 얻었습니다. 결론은 당장은 대중물을 만들기는 힘들다는 것, 그리고 대중단체가 되면 행보가 자유로워지기 힘들다는 것, 기존 단체가 제기하기 어려운 이슈들¹⁵⁾에 대해서 운동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해그림은 매체를 선택했으며, 익숙했던 인쇄매체는 자금사정상 만들기 어려우며 새롭게 부상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할 시점이라는 데 동의하여, '달나라딸세포'라는 웹진(Web-Magazine)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처럼 통신이 어렵고 인터넷이 두려웠던 친구들이 웹진 제작이라는 '고도'의 기술을 익히기는 힘들었으며,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역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몇몇 친구들은 '통신/정보/인터넷/정보민주주의' 등을 배우기 위해, 정보통신 공간에서 일하는 단체에 멤버십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개인적인 진로 역시 정보통신회사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SSmg

현재 딸딸은 지리학, 인류학, 언론정보학 전공 대학원생과, 영상이론과 시나리오를 전공하는 학부생, 정보통신회사 등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자의 진로와 삶은 딸딸이라는 웹진의 기본적인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웹진의 형식 및 기술적인 측면은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중점적으로 맡고 있으며, 다른 전공의 성원들은 이 친구들을 통해서 웹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웹진의 구성은 특집 내지 기획기사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쪽지를 독립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리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저와 같은 경우는 경관과 공간에 관한 성차별적인 부분들 - 이를테면 젠더화된 경관, 지역노동시장의 성별 분화 - 을 웹진의 하부 사이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만화에 관심이 있는 친구는 순정만화평을,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 친구는 영화평을, 의학을 전공했었던 사람은 성상담에 관한 글을,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은 회사에서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글로 옮기고 웹진의 독자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자평을 하자면, 딸딸이라는 웹진에 담긴 글이 여성학적으로 내용적인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논리구성 역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글이 반드시 '여성'에 관한 글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조차 남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을 위한' 사이트를 꾸려가는 일은 여성에 대해 말한다는 사실을 넘어서 일종의 사이버 공간상의 하위문화로서 의미가 더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웹진에 들어오는 딸들에게 "우리의 상황은 이러이러하고, 우리 이런 식으로 세상을 뚫고 나가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노는 모임, 딸이라는 정체성을 잇을 수 있을 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는 딸들의 놀이공간을 조성하는데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미는 텍스트 못지 않게, 사이버 공간상에서 웹의 언어로 즐겁게 놀며 저항할 수 있는 여성들의 하위문화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15) 예를 들어서 '빨간마후라'로 상징되는 청소년 성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어린 여자아이에게 기자들이 했던 질문들("언제 첫경험을 했습니까?")과 카메라의 시선들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기 어렵다는 것 등등.

3. 여성학과 관계 맺기

달걀을 만드는 입장에서 또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¹⁶⁾ 여성학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성학이 기본으로 하는 학문적인 베이스가 다양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존에 번역되어 있는 책과 여성학적 논문의 기반하고 있는 학문은 대부분 사회학과 인류학, 영문학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억압이 사회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기획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라면, 이를 분석/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문분과 역시 그 기반을 넓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잡지를 만들다 보니 생활의 다양한 이슈를 대상으로 글을 쓰게 되는데, (비전공자 내지 학계에 있지 않아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갖가지 주제에 대해서 적절한 이론적 뒷받침을 가져가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어려운 글을 쓰지 못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글의 전체적인 구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깊이를 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성'과 '공간'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는데, '공간'이 여성억압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한 국내의 학문적 성과가 미비한 점이 논문을 전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학의 간학문적인 특성이 더욱 큰 성과를 남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성학이 기존의 여성운동단체 못지 않게, 지금 막 생겨나고 있는 저희와 같은 NGO들 그리고 학내 단체들의 동향 역시 주목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테면 대학내에서 한참 성폭력학칙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성폭력학칙의 내용과 형식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여야 할 지에 대해서 학내 자치모임과 함께 토론했나갔으면 합니다.

4. 외비우스의 떠돌이 꿈꾸며

제도의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스럽습니다. 어떠한 주장을 하기 위해 학적 논리를 따지지 않아도 되고, 논리적 문장보다는 메타포로 접근할 수 있고, 참고문헌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이러한 흐름들이 제도적인 측면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제한적인 성과만을 남을 것입니다.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제해가는 작업이 있어야지만, 일회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운동의 흐름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외비우스의 떠돌이 여성학의 안과 밖은 '여성학이라면' 굳이 선을 긋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학의 출발은 여성운동의 제도권으로의 진입으로 가능해졌던 것이며 계속적으로 제도 밖의 일들이 안쪽으로 수렴되면서 여성학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6) 개인적으로 여성에 관한 석사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지 민지

메 모

Germanist
 (성취) 문화, '지역적 여성학'?

(활동영역) → 변화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남.

I. • 운동이론의 사회적 서사

→ 운동이론이론

① 제1차 여성운동에 대한 기록을 서사화

but 현재까지 평론. 제1차운동의 빛깔에 대한 서사가 부재함

↓
이론화단계에 대한 승리의 평론.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적용이 아님.

× ② 제2차운동에 대한 평론. 평론의 중요성이

함몰 → 구체적인 언어. 이론적 바탕 부족.

II. ↓

i) 이론적 여성운동의 사회적 평론.

ii) 제2차 여성운동이론에 대한 studies 필요

iii) 시대에 대한 배려.

현재 활동가. 이론과 Group의 Meeting이 존재함

III. 외국의 사례에 대한 이론적 분석

IV. 전후. 제2차 운동과

여성학의

V.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제도권 장치

이론가들의 현장체험 장치 필요.

<대안론의 고찰>

→ 대안론이 나이 많은 이들에게 강요.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영양이론 기반) 활동가

(DPK ~~활동가~~ ~~여성학~~ ~~학부~~ ~~이수~~) ~~학부~~

② 대학원 여성학 석사과정 → 학부. 전문.

→ 정책내용. 이념성.

1. 제1차 운동으로 유명.

→ but 불구속제도.

다. 대학원

· 여성학 석사과정. Liberal studies.

· 역사학과

↓ (6 program) Cultural studies 석사과정.

2. 대상에 따라 달라짐. 차별화 (사법대. 등등)

→ 20대-70대. 취업/대학생.

30-40대가 대부분.

3. 과정: 2학기 이상 수업 필수. → 다양한 주제별 수업

여성학. 사회학 과.

· 제2차. 운동

4. 강의명: 평론해설.

→ 원리강의

5. 활동가가 수업

→ 해설강의

6.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 진행.

7. 평가제.

① ~~평점~~ 비평. ...

8. 수업 외 활동 → 여성학과 운동의 현장